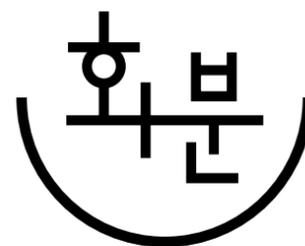


HCF MAGAZINE



2021 SPRING

VOL.50 | RESTART



## RESTART

감염병 시대이다. 사람과 사람이 직접 접촉하지 않는 언택트 시대가 사회적 트렌드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예전의 익숙했던 시절로의 회귀가 아닌, 뉴노멀(New Normal)시대의 새로운 사회·문화·경제적 표준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화성시 지역 문화의 힘으로 '문화도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우리는 언제나 문화에서 답을 찾을 것이다. 좌절하고 도전하며 새롭게 열었던 모든 인류 문명의 기록이라는 답안지에서.

## CONTENTS

### 04 PIECE

화성의 한 조각  
화성시 봄의 모습



### The 담다          예술을 담다

### 10 FOCUS

일상이 특별해지는 순간  
더 H 콘서트

### 14 INTERVIEW

테너 이규철  
공기처럼 누리고 치유하는 음악가로

### 18 COLUMN

유토피아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밈만 골라낼 순 없을까

### 22 TALK

가치 있는 문화생활  
배움의 기쁨과 전달의 즐거움 '도슨트'

### 26 LIVE

식물, 기계를 만나다  
회화 작가 소수빈



### The 가다          공간을 가다

### 32 WALK

2021 찾아가는 공연장  
경인고속도로

### 36 FEATURE

가족과 함께해서 더 특별한 5월  
어린이를 위한 문화 데이트

### 42 TICKET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  
개관 20주년 특별전 [인따]

### 46 SKETCH

화성을 그리는 방법  
고요한 것들이 누리다

### 48 CHECK

화성시 꽃지도를 따라  
걷다가, 쉬다가



### The 하다          함께 하다

### 52 HELLO

연결하는 사람들  
총무팀 대리 김지윤, 김솔

### 56 LIST

정남도서관 5월 북큐레이션  
가족에 대하여

### 60 PEOPLE

당신의 봄날은 어떤 모습인가요?

### 64 CULTURE & ISSUE

화성시문화재단 5, 6월 문화소식

### 70 LETTER

화성시문화재단이 전하는 이야기

### 71 PLACE

배포처





NO WINTER LASTS FOREVER;  
NO SPRING SKIPS ITS TURN.

영원히 지속되는 겨울은 없다. 순서를 건너뛰는 봄도 없다.

- HAL BORLAND

화성시우리꽃식물원  
A.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3.1만세로 777-17



## 화성의 한 조각

반려 식물을 집안에 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공기 정화와 전자파 차단을 위한 기능보다는, 가까이 두고  
 자연을 느끼는 심신 안정에 무게를 더 두고 있다.  
 2021년 화성의 봄. 평소에는 눈길 주지 않았던  
 콘크리트 블록 사이의 새싹에 안도의 한숨이 나온다.  
 다시, 여전히 봄일 수 있구나!



봄을 가까이 두기 위해 '우리꽃식물원'을 찾았다. 1,100여 종의 사계절 우리 꽃 식물이  
 아름다웠고, 적당히 거리를 둔 사람들도 반갑다. 모두가 꽃과 식물, 햇살까지 마음의 정원으로  
 들이느라 바쁘다. 고맙다. 나를 건너뛰지 않는 이 봄이.





The  
담다

예술담다

일상이 특별해지는 순간

더 H 콘서트

THE  
H  
CONCERT

매월 마지막 주, 화성시 곳곳의 카페, 레스토랑 등에서 매일 다른 공연이 펼쳐진다! 단돈 만 원의 티켓 가격으로 수준 높은 공연을 코앞에서 즐기고 아티스트와도 소통할 수 있다니, 이것이야말로 만 원의 행복이 아닐까?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이라고 느낄 때, 그 순간을 특별하게 만들어 줄 <더 H 콘서트>를 만나보자.

글 차영은(기획홍보팀) 사진 공연기획팀

# 3.4 REVIEW

지난 2020년 7월, 이 특별한 기획공연이 시작됐다. 코로나19로 전국 공연장이 문을 닫고 있던 때, 화성시문화재단은 고품질, 고음질의 생생한 온라인 공연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공연의 현장감에 목말라 있는 시민들을 위해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소규모의 인원으로 운영하는 안전한 공연을 기획했다. 이렇게 시작된 <더 H 콘서트>는 화성시 내 카페, 한옥, 레스토랑 등 일상 속 문화거점에서 수준 높은 아티스트를 초청해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면서 지난 한 해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2021년 3월, <더 H 콘서트>가 다시 찾아왔다. 지난 3, 4월의 공연도 티켓 오픈 당일 전석이 매진되는 등 인기가 대단했다. 2021년 <더 H 콘서트>의 문을 연 아티스트는 현악 4중주단 '아벨과르렛'으로 2015년 제9회 하이든 국제 실내악 콩쿠르에서 우승하는 등 멤버 전원이 다수의 국제 콩쿠르에서 수상한 화려한 경력을 가진 유망주들이다. 동탄2신도시에 위치한 '카페 어반리ST'에서 진행된 이날 공연은 관객들에게 품격 있는 클래식 음악을 선보이며 그동안 공연 갈증에 목말랐던 시민들에게 단비와 같은 시간이 되었다. 3월 두 번째 공연은 정남에 위치한 '카페 더 비안코'에서 색소폰 4중주단 '에스윗'의 퓨전 공연으로 펼쳐졌다. 멤버 모두 서울대 기악과를 졸업한 실력파 아티스트 에스윗은 이날 공연에서 우리나라, 독일, 아르헨티아, 러시아, 이집트 등 각국을 대표하는 음악을 색소폰의 화음으로 선보이며 새로운 음악의 세계로 이끌었다. 3월의 마지막은 동탄1신도시 '카페 아스타나'에서 화려한 바이올린 속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탁보니와 기타리스트 김지훈이 출연하여 BTS의 'Dynamite', <타이타닉> OST 등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그들만의 신선한 음악으로 선보였다.

4월 20일 첫 공연에는 '카페 다원'에서 기타리스트 장하은×장형섭 부녀의 공연으로 피아졸라의 'Liber tango'부터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 아이유의 'Blueming'까지 장르와 세대를 불문한 곡들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아빠와 딸의 연주로 감동적인 시간을 선물했다. 이어 팔탄의 '레스토랑 바란다'에서 바이올리니스트 독고 영, 피아니스트 윤정은, 첼리스트 노은경으로 구성된 트리오 '리베르떼'가 품격 높은 클래식 공연을 선보였고, 마도면 '지새움 베이커리'에서는 '문 재즈밴드'의 현대적이고 고급스러운 재즈 무대로 마련되었다. 4월의 마지막 <더 H 콘서트>는 팔탄에 위치한 '로얄엑스'에서 진행 중인 어린이 미술전 <풍당풍당>과 연계하여 어린이와 어른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크로키키 브라더스'의 드로잉 퍼포먼스와 '림스 타악기 앙상블'의 타악기 공연이 펼쳐졌다.





# 5 PREVIEW

5월, 완연한 봄 분위기와 함께 고품격 공연 <더 H 콘서트>는 계속해서 진행된다. 5월 18일에는 올해 새로 개관한 왕배푸른숲도서관에서 '강선아 재즈밴드'가 선보이는 재즈 공연이 마련되어 있다. 이번 공연은 도서관이라는 특별한 장소에서 재즈와 탭댄스를 접목한 신선하면서도 흥겨운 조화로 관객 모두가 재즈의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24일에는 봉담 '카페 스무시간'에서 5인조 세미클래식 앙상블 팀, '세3(세투아)'가 <토이스토리>, <라이언킹>, <브리저튼> 등 친숙한 영화 속 OST를 새로운 편곡으로 들려줄 예정이며, 이어 25일 '카페 더 포레'에서는 멤버 전원이 성악을 전공한 남성 5인조 팝페라 그룹 '엘루체'가 클래식은 물론 대중가요, 뮤지컬 등 다채로운 장르의 레퍼토리를 재치 있는 해설과 함께 선보이며 새로운 감동과 재미를 선물한다.



26일 '카페 이그드라실'에서는 최정상급 테너 이규철과 소프라노 김예은의 성악 리사이틀을 선보이며, 27일 '카페 굿빈스'에서는 가야금과 생황 연주자로 이루어진 국악 듀오 '베리'와 타악 연주자 유병욱이 신선한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5월의 마지막 공연은 28일 '카페 아봉당'에서 혼성 5인조 아카펠라 그룹 '다이아(D.I.A)'가 봄에 어울리는 '벚꽃엔딩'부터 가곡 메들리까지 환상의 하모니로 관객의 귀와 눈, 그리고 마음까지 빼앗는 멋진 공연을 선사할 것이다.

한편 <더 H 콘서트>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예술인의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예술인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예술 단체의 활동 증진 및 발전에 힘쓰고 있으며, 지역 곳곳의 카페, 레스토랑 등지에서 공연을 진행하여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매월 마지막 주, 화성시에서만 즐길 수 있는 하우스 콘서트 <더 H 콘서트>와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 상기 기재된 5월 <더 H 콘서트> 프로그램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투아 앙상블, 국악듀오 베리 신희선, 진보람  
테너 이규철, 소프라노 김예은, 피아노 박솔빈, 타악 연주자 유병욱  
강선아 재즈밴드, 아카펠라 그룹 다이아, 팝페라 그룹 엘루체

## 더 H 콘서트 아티스트 이규철



오페라 카르멘 2막에서 흐르는 아리아 '당신이 던져 준 이 꽃은'(La fleur que tu m'avais jetée) 카르멘이 던져준 꽃으로 옥중에서의 시련을 견뎌내는 돈 호세의 노래이다. 조르주 비제(Georges Bizet, 1838~1875)의 《카르멘》은 사실주의 오페라로 불리며 하층민의 어두운 삶과 새로운 여성 캐릭터로 많은 작곡가들을 매료시켰다. 유약하며 카르멘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돈 호세(테너)의 운명은 2021년의 오페라 테너에게 어떻게 재해석될까.

글 최화정 사진 김영삼

## 청중의 눈과 귀와 마음을 빼앗는 매력적인 테너 공기처럼 누리고 치유하는 음악가로

### 나는 노래를 계속해야 하는 사람

“음악을 시작한 것은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입니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에 입학했는데, 당시 포항에서 '서울대학교' 입학은 큰 경사였어요. 그런데 음악대학이라니 마치 '딴따라'처럼 대하는 걸 보고 클래식에 대한 편견뿐만 아니라 예술가가 사회적으로 대우받는 수준을 알 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을 좋아하는 어머니와 가족들의 응원에 힘입어 즐겁게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간디는 '동물이 받는 대우로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를 가늠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예술가의 사회적 인식과 대우로 예술의 사회적 지위를 가늠할 수도 있다. 이규철 테너는 '소리를 내는 법'부터 차근차근 쌓아가 콩쿠르에 입상하며 알았다고 한다. “나는 노래를 계속해야 하는 사람이다”라고. 대학교 졸업 후 경제적 사정으로 바로 유학길에 오르지 못했지만 그 과정 또한 클래식 음악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다.

### 쾰른 대학교(Universität zu Köln)의 최고연주자

“운이 좋았었다”라고 하지만 2003년 명문인 쾰른 대학에서 첫 시험에 합격을 했다. 500명의 한국 사람들만 따로 시험을 볼 정도로 지원이 많았는데, 총 4명을 뽑는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이 결코 운 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한 학기 시작 후 '드레스덴

콩쿨'에 출전하면서 에이전시를 만나 2005년부터 8년간의 극장 생활이 시작되었다.

“극장 생활과 학업을 병행해야 했기에 학장님을 찾아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학점 상태를 점검해 1학기 조기졸업을 할 수 있었고, 최고연주자 과정 또한 빨랐어요. 시험에서부터 학사과정까지 운이 좋았기도 했지만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2005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두 극장에서 전속으로 일하다 보니, 예술의 사회적 지위에 따른 공적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노력은 자신의 몫이지만 운이라는 것도 사회적 기능이 작용할 때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 독일 예술 극장의 공공시스템을 이해하다

독일과 유럽에서 음악과 예술에 대한 높은 사회적 인식을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날 공연을 끝내고 카페테리아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오페라 가수라고 했더니 고위공직자를 대하듯이 하며 사인을 받아 간 일화도 있었다. 예술인에 대한 존중은 시민들뿐만 아니라 공공 시스템이 굳건히 받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난 후 무척 부럽기도 했다. 30여 작품으로 600여 회의 오페라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예술가에게 한 작품을 이해하고 훈련해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과정이 되었다.



“한국은 사실 극장이 많은 반면 독일은 극장 전속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한 극장에 발레, 연극, 합창단, 오케스트라 등이 소속되어 있어 한 해 예산이 무척 많은데 시나 주에서는 1년 예산의 20-30% 정도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유명 자동차 회사 같은 기업 후원을 받습니다. 그에 따라 행정에서는 후원금만큼 세금 감면을 해주니, 극장에 소속된 예술가들이 안정적으로 작품에만 몰두할 수 있지요. 예술에 대한 존중이 사회시스템으로 정착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도 조금씩 변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 다시, 시작한 곳으로

2013년 귀국길에 올랐다. 잠시 서울에 머물다 2015년에 경기도 화성시 동탄으로 오면서 화성시의 다양한 문화 활동과 공공정책의 지원 사업도 알게 되었다. 독일과 한국의 예술가에 대한 사회적 시스템이 다르다고 해도 나고 자란 곳도 그동안 많이 변했을 것이다. 스스로에게 ‘노래를 계속해야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 나라, 그 지역이 아니던가.

“한국에서는 주로 오페라 공연을 하는데 오는 8월에 스탠딩 오페라를 준비하고 있어요. 오케스트라와 하우스 콘서트, 독창회를 열기도 하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 제도적인 문제에 대한 소리를 내기 위해 활동 중입니다. 2020년에 연주하는 단체를 만들어 시작했는데 코로나19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불러주는 곳에서는 친숙한 레퍼토리를 선곡해 대중에게 더 가까이 가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이규철 테너는 5월 26일 화성시문화재단 2021년 <더 H 콘서트>에 출연한다. “화성시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그는, 이번 공연이 지역 예술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이고 또한 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공적 영역의 문화예술이 아티스트와 시민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배우고 싶다고 말한다. 슈베르트 전곡 독창을 세 번 할 때마다 음악의 색깔과 관객과의 호흡이 달라졌다는데, ‘테너 이규철과 화성시민’과의 호흡은 어떤 빛깔일까?

“  
안정적인 고음,  
폭발적인 성량과 매력적인 연기로  
청중의 눈과 귀와 마음을 빼앗는  
매력적인 테너.  
”

#### 삶의 클래식

“음악은 삶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생활이 기반이 되어야 하고 삶을 꾸려가야 하는 건 보통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코로나와 같은 특수한 시기에 공기 같은 음악을 마음껏 누리 못하는 연주자들과 관객들이 아쉽지만 합니다. 유학을 떠날 때와 돌아온 지금, 연주할 때 고용보험을 가입을 하는 것처럼 사회적 변화가 느껴집니다. 삶이 지속되는 것처럼 모든 변화가 한꺼번에 이루어질 순 없지만 좀 더 많은 대중들을 만나길 바랍니다.”

현재 입시를 앞두고 유학을 준비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악 코치도 하고 있다. ‘나를 떠나서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자 한다’는 마음으로 대학입시뿐만 아니라 더 멀리 보는 안목을 키워주려 한다. 그들의 수년간의 노력이 단 1분 30초 안에 평가를 당하고 결과에 따라 운명이 바뀌는 것이 안타까웠다. 지금은 비록 입시생이지만 훗날 무대에 같이 오르게 될 동료이기에 후배들을 위해 우리 세대에서 더 좋은 제도를 만들어야겠다는 각오가 생긴다. 누군가에게 음악이 즐겁게 누리는 것이지만 또 누군가에게 삶, 전체일 수도 있기에.

#### 한 여고생이 알려준 음악

“귀국하고 선배로부터 팝스오케라와 공연을 하는데 독창회를 부탁받았어요. ‘꿈과 희망’이 콘셉트인 공연이었는데 오페라 아리아, 소프라노, 가요 등이 울려 퍼졌고 관객으로 여고생들이 많이 왔죠. 독창회가 끝나고 사인을 하는 동안 출구 쪽 문에 한 학생이 계속 서있는 거예요. 대기실로 들어가는데 그 학생이 다가와 눈물을 흘리며 ‘학교폭력으로 자살기도하려 했는데 오늘 선생님 공연을 보고 잘 이겨내고 살아봐야겠다’라고 하더군요. 눈물이 났어요. 내 노래가 때로는 누군가를 살게 하는구나 싶어서 말이죠.”



그때부터였을까. 음악이 관객들을 치유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는 장르를 따지지 않고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게 되었다. 즐거움은 배로 높여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음악은 치유이다. 이규철 테너는 노래를 계속해야 하는 사람이며,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날 한 여고생의 고백을 통해 알았다. 그에게 누군가 음악을 왜 하냐고 묻는다면 답할 것이다.

“나는 음악을 계속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 테너 이규철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독일 쾰른 대학 성악과 최고연주자 과정 졸업.
- 재학 중 국립오페라 컴피티션 winner, 대구콩쿨 대상, KBS 신인 음악콩쿨 입상.
- 독일 아이제나 호 주립극장, 레겐스부르크 시립극장 전속 주역 및 초청 주역가수.
- 오페라 로엔그린, 탄호이저, 방황하는 네델란드인, 마탄의 사수, 토스카, 마농 레스코, 안드레아 쉬니에, 투란도트, 카르멘, 라 보엠, 라 트라비아타, 예프게니 오네긴, 파우스트, 오페레타 박쥐, 미소의 나라에서 주역 출연.
- 귀국 후, 국립오페라단, 서울시오페라단, 대전 예술의전당의 오페라 라보엠, 마탄의 사수, 카멜 등 주역으로 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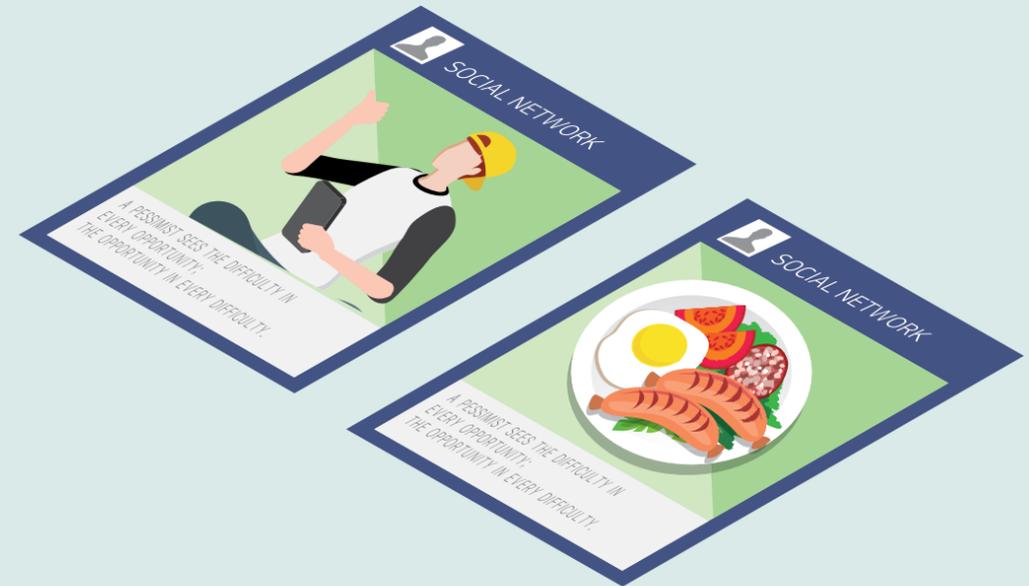
# meme

# www

## 유토피아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밈만 골라낼 순 없을까

눈 뜨기 싫은 아침 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받은 이미지 한 장이 마음을 풀어준다. 이미지 속 가수 이애란은 “(회사에) 못 간다고 전해라” 하며 <백세인생> 노래를 부른다. 차마 실행할 순 없어도 마치 실행한 듯한 통쾌함이다. 직장 상사에게 가당치도 않은 소리를 들었을 땐 ‘작작해요’라는 자막이 붙은 연예인 이미지를 동기와 주고받는다. 점심 시간 가수 비의 “1일 3강은 해야죠”라는 너스레를 퍼 나르며 깔깔대고 웃는다. 풍자와 유머, 조롱과 웃음 그 어딘가에서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든다. 어느 방송에서 나온 연예인의 말 한마디, 커뮤니티에 올라온 재미있는 한 문장, 영화에서 만들어진 효과 있는 캡처 한 장. 이것들이 사람들에게 퍼지고, 이를 보는 사람은 이를 또 복제해 퍼뜨린다. 그야말로 끊임없이 자가 복제를 일으키는 ‘밈(meme)’ 시대에 살고 있다.

글 정자연



### 온라인, SNS 만나 폭발적 의사전달 수단으로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자신이 주창한 ‘밈’이 현대에 이렇게 흥할 것이라 예상했을까. 1976년에 출간된 리처드 도킨스의 저서 <이기적 유전자>에서 처음 등장한 밈은 간단하게 ‘비 유전적 문화요소’다. 관습, 건축, 종교 등 인류가 축적해 온 수많은 문화유산은 대부분 모방하고 복제하며 전달됐다. 이때, 그 모방이나 복제 거리가 되는 문화 단위가 바로 밈이다. 요즘 말로 쉽게 표현하면 온라인이나 SNS에서 복제되는 이미지, 영상, 댓글 등의 콘텐츠다.

밈은 요즘 시대에 갑작스럽게 태어난 것이 아니다. 과거에도 영화나 TV에서 생성된 콘텐츠들은 패러디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에서 놀이거리로 일찍이 존재했다. 온라인과 SNS를 만나 폭발적인 활용도를 갖게 됐다. 2015년대까지만 해도 ‘짤방’이 대부분이던 밈은 유튜브가 보편화되면서 이미지에서 영상으로 영역을 넓혔다. 일부 인터넷 게시판에서 확산되던 밈이 댓글로 점차 확산되고,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부터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 망 서비스로, 이젠 카카오톡과 틱톡 등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일상으로 들어왔다. 과거 소수 네티즌끼리 깔깔대며 소비했다면, 이제는 TV 광고와 주식을 넘나들며 경제, 문화계까지 뒤흔들고 있다. 선조들의 경험과 선견지명으로 탄생한 적절한 풍자와 위트가 속담이라면 밈은 댓글과 이미지, 영상으로 만들어지는 21세기형 속담, 비유이자, 하나의 의사전달 수단이 된 것이다.

## 사라진 맥락 속 불편한 진실

이용자나 전문가들은 밈 현상을 굳이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서로 낱낱대고 즐기고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기 때문이다. 밈 편집으로 유명한 김성하 프로듀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밈에는 '나 이거 아는데'란 정서가 묻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밈 콘텐츠는 단순히 소비되는 이미지에 그치지 않는다. 밈으로 파생되기 전 모태는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등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권력을 가진 자의 제스처나 연설이 이후에 밈으로 파생된 사례는 수없이 볼 수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세 과정에서 외친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여러분", 고승덕 변호사가 서울시고육감 후보 시절 외친 "미안하다"는 수년이 흐른 지금도 유명한 밈으로 쓰인다. 이러한 화화 속에는 권력가의 거짓말이나 과장된 표현을 조롱하는 통쾌함이 담겼다.

하지만 모든 물질은 복제되고 변조되면서 본질이 희미해진다. 밈이 가졌던 맥락의 힘 역시 사라지고 복제만 남는다. 밈의 힘은 맥락이며, 그 맥락 속에서 복제된다. 김성하 프로듀서는 패러디와 밈의 차이로 '맥락의 차이'를 꼽기도 했다. 그러나 변조를 거듭하는 순간 처음의 맥락은 사라진다. 사라진 맥락 속에서 윤리적 문제는 따질 수조차 없다.



한때 유행한 '~노'체가 대표적이다. 게임, 4컷짜리 만화에 확장되고, 유아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본떠 함께 쓰이며 새로운 옷을 입는다. 댓글과 SNS 등에서는 어미에 '노'를 붙인 화법이 유행처럼 번졌다. 알고 보면 노체의 본질은 고인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의미였다. 전 대통령의 성에서 가져온 이 화법은 일간베스트, 디시인사이드, 메갈리아 등 특정 사이트에서 사용하면서 무수히 복제되고 변조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애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사용하는 이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유행만 남고 윤리는 사라진다. 윤리성이 사라진 밈은 일상에서, 아이들의 언어에서 사용되고 퍼진다.

'신박하다', '재밌다'로 시작한 퍼나르기가 잘못된 정보의 확대 재생산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한때 트위터는 이런 잘못된 정보가 확대 재생산되면서 '밈거트(밈고 거르고 보는 트위터)'라는 불명예를 얻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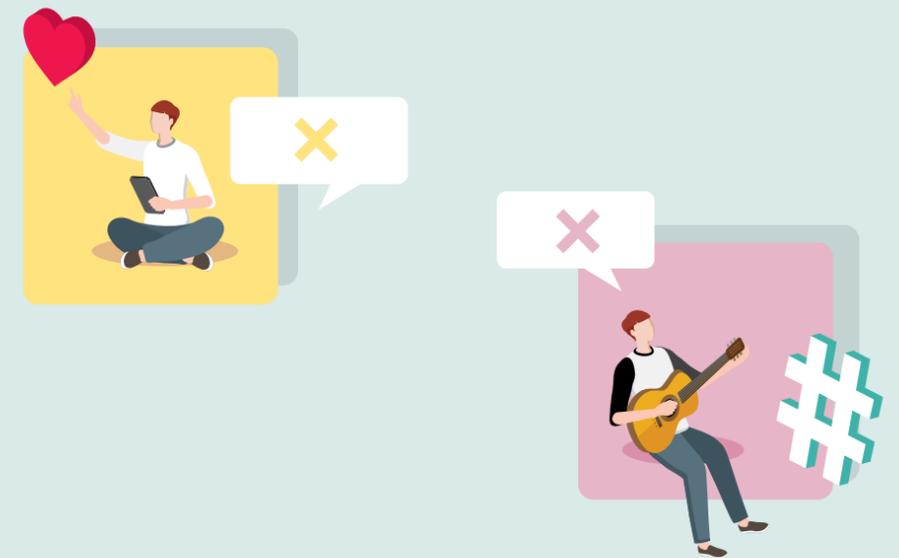
## 그 자체로 유쾌한 지속 가능한 밈이 필요

여성 폄하·혐오 틀에 갇힌 밈도 복제되며 유행처럼 쓰인다. 지난해 미국에서 유행한 '캐런 밈(Karen meme)'이 대표적이다.

'캐런 밈'은 비무장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항의 시위와 맞물려 백인 특권을 조롱하는 상황을 비유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캐런은 특권 의식에 사로잡힌 백인 중년이 아닌, '백인 중년 여성'의 대명사가 됐다. 1960년대 미 인구의 80%는 백인이었던 탓이다. 백인 중년 여성이 대중의 손가락질을 받을 때는 늘 캐런 밈이 소환됐다. 복제와 변조 속에서 인종 우위 의식 비판이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성차별적 명칭만 남았다. 굳이 멀리 찾을 필요도 없다. 한국에서도 '김여사', '맘충'이 여성을 겨냥한 조롱적 표현, 재미로 쓰였었다. 밈의 틀에 갇힌 비하와 혐오는 애초의 본질적 문제를 사라지게 한다. 재미와 무의식 속 무한 반복에서 윤리적 문제를 따질 길은 더더욱 없다.

지난 2017년 미국 소설가 앨리너 그레이든은 데뷔작 <밈: 언어가 사라진 세상>에서 모든 기억과 소통을 밈이라는 스마트 기기에 맡기는 세상을 그렸다. 엉뚱한 신조어가 기존의 언어로 바뀌어가고 치명적인 언어 바이러스가 발병해 극심한 혼란에 빠진다.

지금도 특정 키워드, 특정 내용이 담겨 있는 곳에는 맥락과 상관없이 반사적으로 밈이 달리고 놀이가 오간다. 소설로 그린 디스토피아가 가볍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다. 좀 덜 심각하고 밈 그 자체와 유쾌함에만 집중할 방법은 없을까. 지속 가능한 밈을 위해 고민해 볼 시점이다.



정자연 경기일보 문화체육부 차장  
경기도 문화소식과 문화정책 전문 기자

## 가치 있는 문화생활 배움의 기쁨과 전달의 즐거움

### 도슨트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일은 쉽지 않다. 하지만 좋아하는 일이라면 용기를 내 볼만하다. 코로나로 인해 문화생활에 목말라 있던 나에게 도슨트 활동은 배움의 기쁨과 전달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이다. 전시회장에서 작품과 작가를 직접 만나고, 관람객에게 작품을 설명하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일은 문화와 예술을 좋아하는 이에게 충분히 매력적이다.

글 김상미

© 문준용 | 액자와 나무와 새들

코로나의 장기화로 비대면 공연, 전시가 주를 이루게 되었지만 비대면 방식은 현장의 생동감과 느낌을 전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화성시문화재단은 시민들의 다채로운 문화생활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각기 다른 주제의 미디어아트 전시 프로젝트를 이어오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사전예약과 인원 제한을 두고 운영 중이지만, 여전히 동탄아트스페이스를 찾는 시민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는다.



© 정정주 | 응시의 도시

### 예술과 기술의 하모니 ‘미디어아트’

올해 첫 번째 미디어아트 전시 <LIVE ON MARS>는 문준용, 정정주 작가의 두 가지 작품을 선보였다.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하는 문준용의 <액자와 나무와 새들>은 관람객이 3D프린터로 만든 나무가 서 있는 액자에 조명 장치를 비추면 세 면의 벽면에 액자와 또 다른 가상의 그림자들이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증강현실을 만들어 내는 작품이다. 민감한 센서로 인해 체험이 불안정할 때도 있었지만 이번 작품에 관람객의 반응도는 뜨거웠다. 정정주의 <응시의 도시>는 사라진 건물 모형들 내부에 소형 카메라를 숨겨두고 관람객이 작품 내 카메라로 관찰되어 전시장에 보이게 되는 작품이다. 이러한 시선의 권력을 이용한 긴장감을 느끼게 하는 작품 의도를 잘 전달하기 위해 관람객에게 카메라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고, 그저 작은 건물 모형을 신기한 듯 바라보던 관람객들은 숨겨진 카메라로 자신의 모습이 촬영되어 보인다는 사실을 알고는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였다.

**코로나에 지친 이를 위로하는 감각적인 작품들**

두 번째 <Another Sense> 전시에서는 미디어아트 그룹 스튜디오 아텍과 톨보이가 감각적인 작품을 선보였다. 스튜디오 아텍의 <입자 운동>은 사람의 움직임과 호흡에 집중해 그 흐름을 화면에 디지털로 재구성한 작품으로, 관람객의 움직임은 모션 캡처 시스템을 통해 매핑된 화면에 입자의 구름으로 그려진다. 이는 실제 무용수들의 움직임을 녹화하고 그 데이터를 관람객 움직임에 적용해 마치 춤을 추는 듯 우아하게 표현된다. 톨보이의 <Chandelier-Landing>과 <Drop-ver-pink>은 단종된 형광등과 앞으로 생산과 수입이 금지될 형광등을 이용해 화려한 샹들리에로 재탄생했다. 특히 <Drop-ver-pink>는 식물재배용 조명인 분홍색 PG 형광등을 사용해 코로나로 지친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전달했고, 화려한 빛의 낭만적 분위기 때문인지 여성 관람객의 포토존으로 인기를 끌었다.

세 번째 전시로 미디어아트 그룹 ATOD이 참여한 <ILLUSION>은 앞선 전시보다 시민들의 발길이 잦았다. 김민직의 <Surface\_Tri>는 트라이 비전이라는 옛 광고판을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세 면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 회전하면서 여러 가지 패턴과 문자를 만들어 낸다. 특히 유리면이 움직일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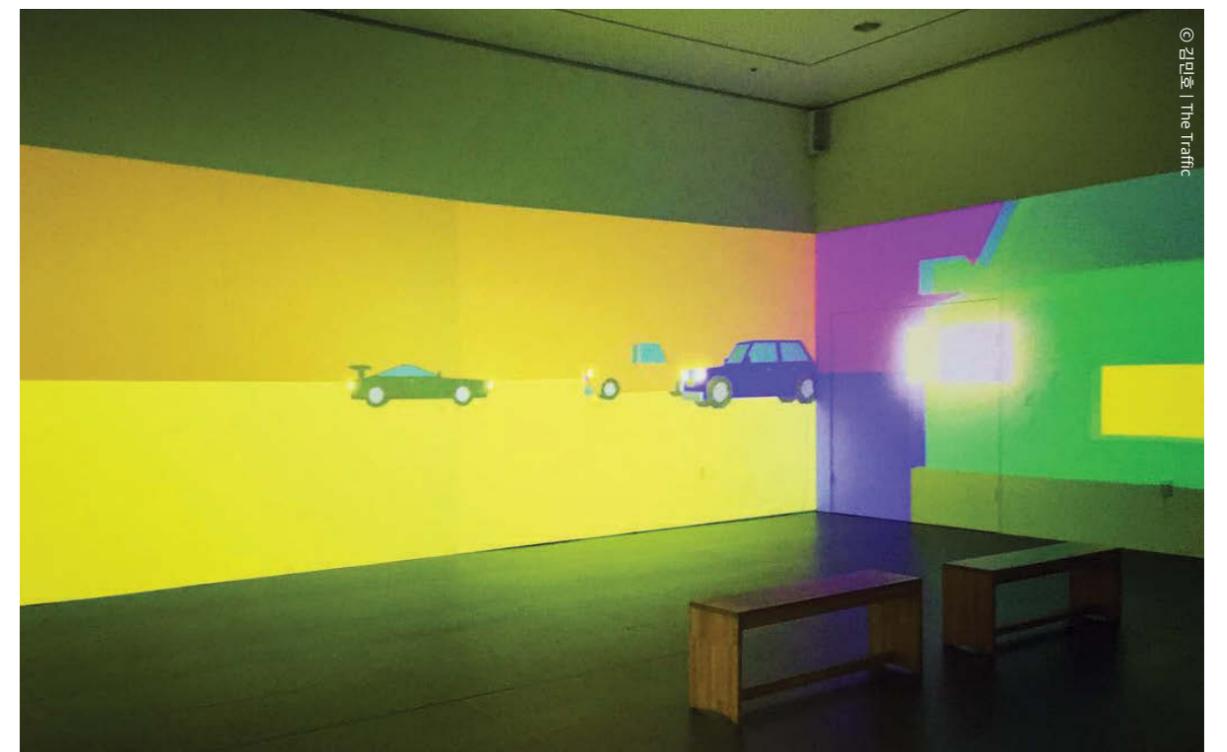


© 미디어아트 그룹 톨보이 | Drop-ver-pink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빛들이 반사, 굴절되어 만들어지는 빛의 이동 모습은 관람객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김민호의 <Sextet>는 6개의 시계 조형물의 시곗바늘을 돌리면 다양한 소리가 들리고 각기 다른 소리가 화음을 만들어 내는 작품으로, 청각이 예민한 어린 관람객의 관심을 끌었다. 이승정의 <Emotion Ring>은 인간의 감정과 감성을 시각화한 작품으로, 작가 자신의 뇌파를 이용해 감정을 연속적인 실수의 집합으로 표현한 생태학적 데이터를 활용해 이를 구조적인 물체로 만들어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술작품으로 표현했다. 인간의 감정을 예술작품과 접목한다는 발상은 관람객의 호기심을 자극했지만, 작가의 뇌파에 반응하는 작품의 반짝임과 색을 녹화한 작품이라는 설명에 체험을 기대한 관람객은 아쉬워하기도 했다.

도슨트 활동을 한 지 6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전시장에서 만난 이들은 사전예약 등의 제한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한 문화생활의 막마름을 이렇게나마 해소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한다. 나 또한 관람객의 만족도가 높은 전시회일수록 많은 분이 작품 감상의 기회를 얻기를 바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도슨트로서 다양한 관람객을 만날수록 작품에 대한 설명과 관람객과의 상호작용이 더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전시장을 여러 번 방문한 관람객과의 친근한 소통은 도슨트 활동의 즐거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슨트는 문화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예술에 대한 뛰어난 안목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품을 공부하고, 관람객에게 친절하게 작품에 관한 내용을 전달할 마음가짐이 있다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일이다.



© 김민호 | The Traffic

**김상미**

프리랜서 작가이자 전시 도슨트. 신문사 기자에서 결혼과 함께 프루주부로 지내다 익숙함을 견어내고, 문화-예술 글쓰기, 도슨트 활동으로 인생 2막을 시작하는 중이다.



## 소수빈 작가의 방 식물, 기계를 만나다

식물은 생태계를 이루는 무리이고,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생물이다. 그리고 적도부터 극지방까지 거의 모든 곳에 분포하고 있다. 아침에 눈을 떠 저녁에 눈을 감기까지 우리는 푸르거나 하얗거나 다채로운 빛깔의 식물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적이 없다. 근래에는 대기오염 때문에 공기정화식물을 집안에 들이기도 한다. 가끔은 텔레비전 옆에 있는 전자파 차단 식물을 보며 생각을 한다. 식물에도 감정이 있나요?

글 최화정 사진 김영삼

## 당신은 누구인가요?

어릴 적에는 콜라보가 타협하는 것 같아 싫어했는데, 이제는 다양한 분야와 콜라보를 하는 회화 작가입니다. 나이가 든 건가요?(웃음) 대학에서는 회화를 전공하고 프랑스에서 공부했으며 지금은 강의와 국내·외 전시를 하고 있어요. 주로 인터랙티브(interactive: 대화식, 쌍방향의)한 활동들을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언택트 시대가 되었죠. 하지만 오히려 감염병 시대가 '만남', '연결', '소통'의 방식을 찾아내게도 해요. 프랑스에서 공부할 때부터 식물을 주제로 드로잉, 회화, 식물 생장과정, 식물 로봇을 통해 식물이 기계를 만나는 과정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식물과 기계, 생소한 매칭이죠?(웃음) 사람들이 처음에는 낯설어하지만 그림과 기계를 동시에 보면 호기심과 관심을 보이기도 해요. 저는 그 호기심을 더 키우기 위해 식물을 연구하는 학자를 만나고, 새롭게 출현하는 기계를 공부하고 있어요. 회화 작가가 식물과 과학 관련된 책을 읽는 모습, 낯설지만 재미있지 않나요?





tropical agroforest 01 163x130cm, oil on canvas, 2020

## 당신은 어떤 작업을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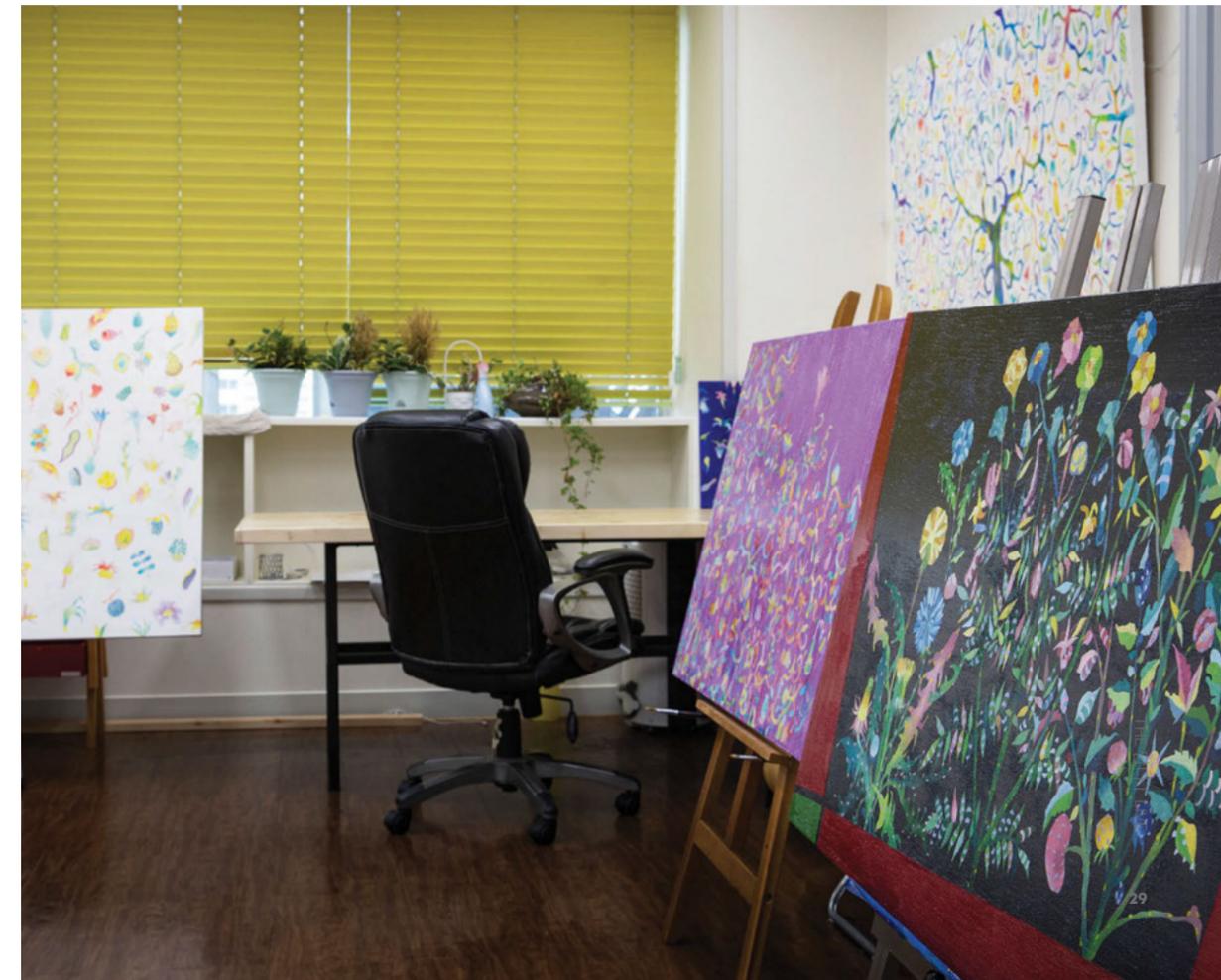
식물을 통해 생명이 자라나는 과정을 전달하려고 해요. 식물을 쪼개고, 붙이고, 찍거나, 동력을 가진 기계를 통해 <식물 실험>을 보여주죠. 때로는 '바이오 아트'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제 작업이 하이브리드 플랜트(Hybrid Plant) 작업이라 할 수 있겠네요. 지금은 3D프린터 공부하고 있어요. 새로운 기계의 출현은 제 작업의 모티브가 되기도 하는데 전시를 본 사람들이 제게 물어요. "작가님은 기계를 만드는 사람이세요?"라고. 아이들에게 등·하굣길에 보이는 식물에 이름을 붙이고 돌보게 하면 화원의 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게 돼요. 관찰자가 되면 무심히 스쳤던 것들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죠.

과학문명은 발전하고 사회는 변화하는데 우리는 또 공기 좋은 자연 속에서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과 세상의 변화에 집중하고 관심 갖도록 안내하는 것이 예술가의 역할이라 생각해요. 화성시문화재단과는 '2020 동탄아트스페이스 신진작가'와 '2021 아트페어' 선정 작가로 활동을 했어요. 특히 재미있었던 작업은 동탄에서의 전시였는데, 회화와 기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작업이었죠. 작가는 작업에 대한 결과물을 최상으로 보여줄 때 희열을 느껴요. 현대는 기계와 식물이 공존하고 있어요. 두 개가 적절하고, 안전하게, 섞이는 미래, 우리 같이 상상하지 않을까요?

## 당신의 작업실은 어떤 곳인가요?

학교 수업 이외의 시간에는 작업실에 나오는데, 공장 다니느라 바빠요. 작업실에서 그림 그리는 모습만 상상하셨죠?(웃음) 원하는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소와 을지로 공장에 의뢰하고 제작 과정을 점검해야 해요. 또 새로운 기계를 구경하며 원리를 파악해 어디까지 표현할 수 있는지 구상도 하고요. 제 작업은 현실에 기반하기에 제작 의뢰 전에는 전문가에게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해요. 저는 회화 작가이고, 테크놀로지는 수단이기 때문에 과학자들만큼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예술가이기 때문에 '가설'과 '증명'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장점도 있어요.

식물의 성장과정이 문명이 진화하는 과정과 닮았다면 예술하는 과학자 같나요?(웃음) 제 작업실은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곳이고, 실패하고 도전하는 장소라 말하고 싶어요. 기회가 된다면 정말 식물이 넘치는 곳으로 가고 싶지만, 아직은 이 도시에서 해야 할 작업들도 많고요. 새로운 기계 출연하면 공장도 연구소로 다니느라 이 공간이 텅 비어 있을 수 있겠네요. 하지만 여전히 냉장고와 화분, 커피포트와 실내화에서 새로운 '생명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오시기 전에 전화 주시겠어요?



**WALK**

찾아가는 공연장  
경인고속도로

**FEATURE**

어린이를 위한 문화 데이트

**TICKET**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  
개관 20주년 특별전

**SKET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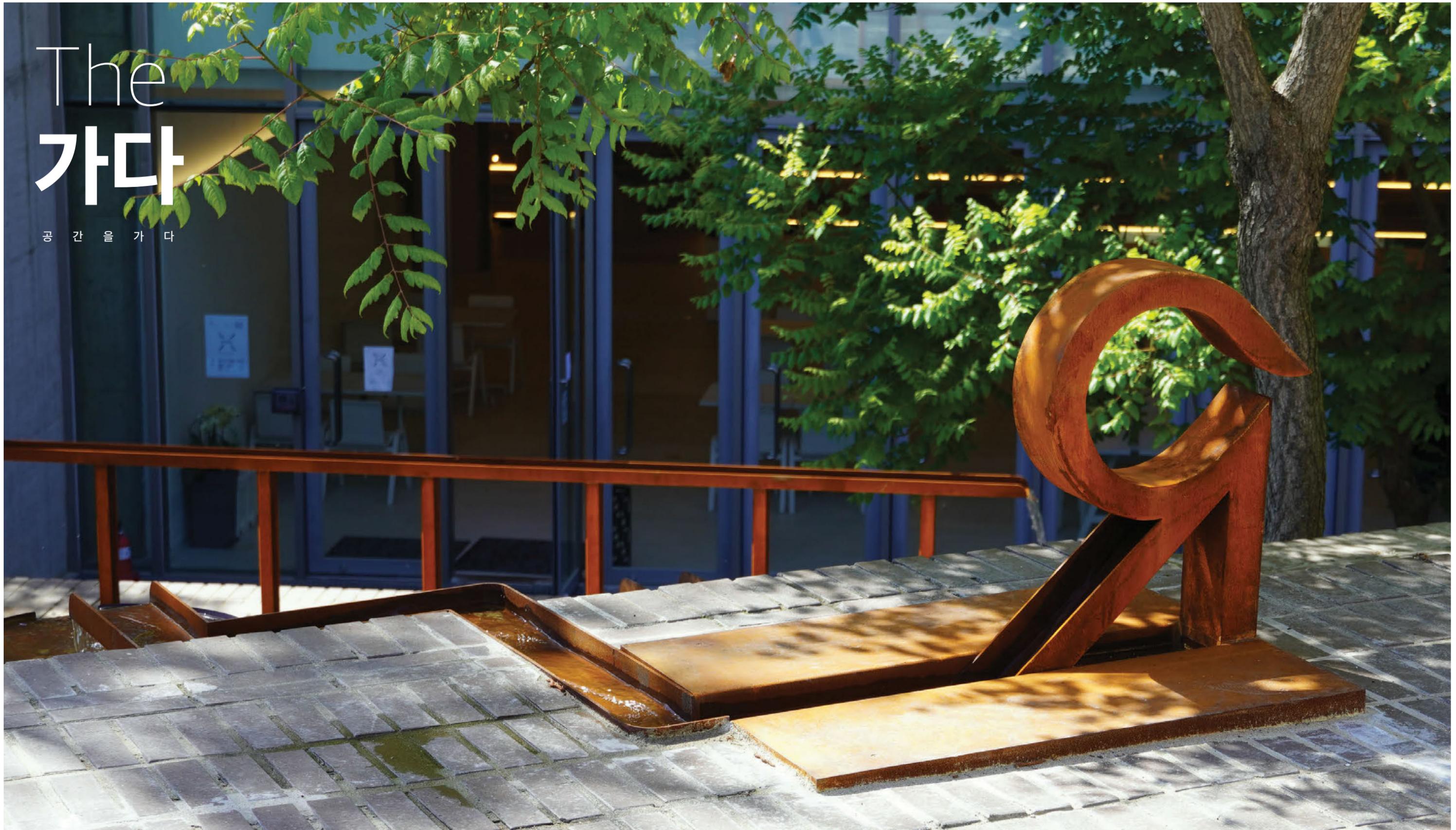
화성을 그리는 방법

**CHECK**

화성시 꽃지도를 따라  
걷다가, 쉬다가

# The 가다

공 간 을 가 다



신용남

김정기

# 경인고속도로



음악은 우리가 좋아하는 드라마와 영화뿐만 아니라 게임 속에서도 나온다. 장례식장 건물 안에서도  
고요한 음악이 들리고, 돌을 맞은 아기를 축하하는 자리에서도 음악은 흐른다.

너무나 당연한 듯 공기 같은 음악들은 인간의 희로애락(喜怒哀樂) 서사의 모든 배경이 되어주었다.  
멤버들의 고향이 서울과 인천이라는 이유로 어쿠스틱 듀오 '경인고속도로'가 탄생할 때  
과연 어떤 음악이 배경이 되었을까?

글 최화정 사진 김영삼

## 2021 찾아가는공연장 선정 아티스트 록(ROCK)으로 무장된 포크 듀오

### 서울과 인천을 잇다

**신용남** 내가 인천이고 김정기(이하 친구)가 서울이라 서울과 인  
천을 잇는 고속도로를 밴드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2008년도부  
터 '글루미 서티스'라는 밴드를 하고 있었고, 친구는 '카멜라이즈'  
로 활동하는데 당시에는 서로 몰랐습니다. 이후에 인천의 '라이  
브클럽 락캠프' 공연장에서 카멜라이즈가 먼저 공연을 하고 저  
도 오디션을 본 후 함께 공연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밴드로서는  
처음 두 팀이 만났고 동갑에 포지션도 같아서 호감이 생겼어요.

한국에서는 밴드 형태의 뮤지션들이 활동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도 하다. 대형 기획사들이 모두 중앙에 집중되어 있고, 관련 음악

시장 또한 지역 불균형이 심해 꿈에 부풀었던 뮤지션들은 각자  
의 생계를 찾아 떠나기도 한다. 점점 아이들이 대세인 음악계에  
서 다시 밴드를 결성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배고프다는데...

**김정기** 2015년에 밴드의 명맥이 유지하는 것이 힘들어 해체했어  
요. 막상 혼자서 음악을 한다는 게 두렵기도 해서 신용남 친구와  
저 모두 작사·작곡을 했던 터라, 어쿠스틱으로 둘이 공연을 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고 바로 '경인고속도로'라는 이름으로 밴드를  
결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어요. 경인고속도  
로의 공연 횟수를 봤을 때는 역대 밴드에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많이 했는데 둘이 잘 맞는다고 할 수 있겠죠?(웃음)



## 보릿고개를 건너는 밴드의 자세

처음에는 둘이 하다가 홀로 서는 게 가능하면 각자 서기로 했었다. 그런데 점점 새로운 레퍼토리가 생기다 보니 시너지 효과가 컸다고 하는데, 따로 또 같이 둘은 서로에게 충분한 배경이 되어서이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대에 서는 뮤지션들이 맞는 감염병 시대는 냉혹하지만 하다. 무대가 사라졌으니까.

**신용남** 매년 초는 우리들에게 보릿고개 기간입니다. 1-3월은 각 기관의 공모사업을 찾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공연들을 준비하는 기간인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공연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시간을 허투루 보낼 수 없어 악기와 장비 정비, 음원 발매 준비도 하고 있어요. 올해 '경인고속도로'로 디지털 싱글을 발표합니다.

**김정기** 개인 작품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청심(淸心)이라는 이름으로 트로트 앨범도 냈어요. 디지털 싱글은 인천평화창작가요제에서 창작곡으로 출전해 옴니버스 형식으로 음원화되긴 했는데, '경인고속도로'라는 이름으로는 첫 번째 싱글입니다.

경인고속도로는 공연 시 이동에 용이한 통기타로 공연을 하지만 상황에 따라 일렉트릭 기타를 사용하기도 한다. 다만, 밴드 이름에 두 사람의 음악 정체성이 잘 드러나지 않아 어쿠스틱 기타를 매고 공연을 하는 어쿠스틱 듀오라 명명을 했다. 보릿고개를 건너기 위해서는 밴드의 정체성을 대중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뮤지션들의 몫이라.

## 현장의 뜨거움을 기억하다

**김정기** 공연이 가장 많았을 때는 일 년에 100회 정도 노래를 했어요. 공연마다 출연료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우리를 탄생하게 한 '락캠프 공연장' 같은 곳에서는 무료로도 공연을 합니다. 그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서로 좋아하는 뮤지션도 비슷했지만, 약속을 잘 지키려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뮤지션이라는 정체성도 있지만 사람에 대한 예의도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경인고속도로가 추구하는 음악은 '함께 즐기는 음악'이다. 공연을 갈 때 정해진 시간은 있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공연 색깔을 규정하지 않는다. 공연장의 분위기와 사람들을 미리 만나볼 수 없으니, 현장에 가서 곡의 분위기를 만든다. 오랜 무대 경험이 현장을 알게 한 것일까, 혹은 관객을 대하는 두려움과 떨림일까?

**신용남** 두려움에 떨면서 시작했던 경험이기도 합니다. 눈치를 봤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 두려움이 이제는 자부심이 되었어요. 관객들이 좋아하는 것과 요구하는 것들을 빠르게 파악하고 들려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록으로 무장된 포크 듀오!

각자의 밴드를 할 때보다 훨씬 많은 공연을 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개발하고 협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커졌다. 다른 밴드를 할 때는 장비 때문에 움직임과 공간에 한계에 있는 반면, 둘이서 통기타를 매고 공연을 할



예술인들과 청년들에게 노동의 대가를 인정받기보다 재능기부를 요구받는 사회적 현상이 한동안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문화예술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이 높아짐에 따라 점점 예술가들의 임금체계가 공론화되고, 그 변화는 행정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다행이다. 그들이 계속 음악을 할 수 있어서, 우리가 계속 들을 수 있어서.

**김정기** 음악만 했던 사람들이라 서류작업이 쉽지 않았어요. 서류의 글들이 어렵고 '공연하는데 이런 게 왜 필요하지?'라는 생각도 했어요. 협업 과정에서 예술가들에게 문턱을 낮추고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뮤지션들이 행정의 공적 기능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말이죠. 관객을 만나는 다양한 방법을 찾은 우리가 운이 좋은 거 같습니다.

## 다시, 무대를 꿈꾸며

두 사람은 지역사회 발전에 문화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는 같은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일회성에 그치는 공연과 행사들에 아쉬움이 컸었다"라고. 다만 감염병 시대에 일회성 무대조차도 없다는 것이 무척 아쉬운 일이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무대에 서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2020년, 서울이 고향이었던 김정기 씨는 인천으로 이사를 왔다. 서로의 고향인 '서울-인천'을 밴드명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인천-인천'이 되었다. 우리는 그들의 변화를 기다린다.

**신용남** 2019년에 경인고속도로라는 이름으로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무대에 서면서 그전 밴드와는 서보지 못하고 해체됐는데, 원하는 일은 느닷없이 이루어지기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죠. 때로는 너무 애달프지 않게 마음을 놓고서, 어느 날 느닷없이 경인고속도로의 음악을 기쁘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 있는 무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밴드가 가벼워지니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건 아닐까?

## 낮설지만 새로운 행정과의 협업

**신용남** 2017년 하루 일과가 공연단체 모집 공고를 보는 것이었어요. 화성시문화재단의 <찾아가는 공연장-이하 '찾공'> 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되어 지원을 받아 화성시 곳곳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찾공'은 화성시 서남부권, 신도시 등 문화 취약지역 또는 인구 조밀 지역 등지에서 전문 공연단체의 다양한 공연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도 5월부터 '찾아가는 공연장' <지나가다, 가>를 시작합니다. 화성시문화재단과의 협업으로 뮤지션들에게 낮설던 공적 영역이 새로운 무대를 만들어 주었고, 응원이라 생각하고 공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해서  
더 특별한 5월

## 어린이를 위한 문화 데이트

많은 이들이 가장 사랑하는 계절, 봄. 초록빛 거리가 펼쳐지는 너무나도 설레는 계절이다.  
향기로운 봄의 절정기 5월 아이들과 함께 가볼 만한 곳을 찾아보고 있다면, 우리 동네 문화예술 나들이를 떠나보자.  
아이들에게 특별한 예술 경험을 선사할 전시, 공연을 소개한다.

글 차영은(기획홍보팀)

## 가족의 사랑에 풍당, 예술작품에 풍당 어린이 미술전 <풍당풍당>



가족 간의 끈끈한 사랑과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어린이 미술전이 로얄엑스(화성시 팔탄면 소재)에서 펼쳐진다. 전시명 <풍당풍당>은 우리가 어릴 적 불렀던 '풍당 풍당~ 돌을 던지자~' 동요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의성어로 어린이들이 이번 전시를 통해 꿈과 희망을 '풍당' 던져보고 그 속으로 빠져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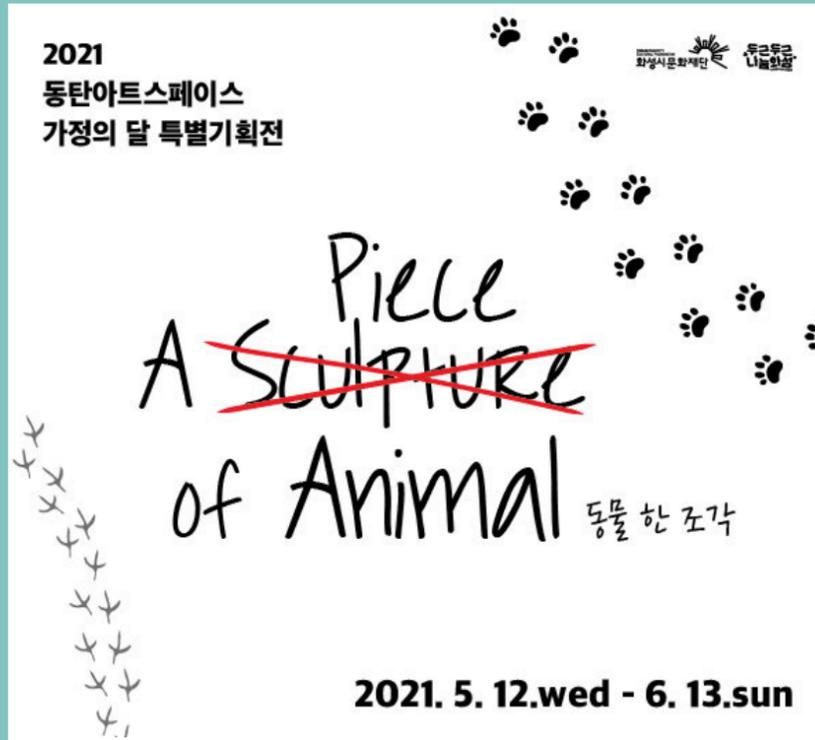
이번 전시는 김재용 작가의 '달콤한 위안', 신선미 작가의 '따뜻한 기억', 이연숙 작가의 '영원한 마음'이라는 세 가지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다. 김재용 작가의 다채로운 도넛 모양의 조형 작품은 우리의 지각과 감정이 유쾌해짐과 동시에 진지함이 공존하는 미적 경험의 공간으로 인도하는 작품으로 관람객들에게 '달콤한 위안'을 선사한다. 신선미 작가는 과거 사랑하는 이들과의 추억을 따뜻하게 그려낸 한국화 작품으로, 가족에 대한 기억을 녹여 가장 그리운 때로 되돌아가는 신비로운 여정을 담아 '따뜻한 기억'을 전한다. 이연숙 작가는 신작 '무지개 구름 방울'을 선보이며, 부모 자식 간의 사랑하는 마음과 존경을 담은 영상작품 등으로 '영원한 마음'을 그려낸다. 이번 전시의 작품 속에 나열된 다양한 이야기들에 '풍당' 빠져보는 기쁨을 느끼고, 가족에 대한 소중함과 따스함에 '풍당' 빠져보자.

연제 2021년 4월 27일 ~ 6월 20일  
(월요일, 5월 19일 휴관)

어디서 로얄엑스(화성시 팔탄면 시청로 895-20)

문의 031 290 4691, 4693

조각으로 만나는 동물  
A Piece of Animal: 동물 한 조각 展



동물을 주제로 하여, 온 가족이 쉽고 재밌게 관람할 수 있는 조각 전시가 동탄아트스페이스에서 펼쳐진다. <A Piece of Animal: 동물 한 조각>은 '조각'이라는 동음이의어를 활용해 다양한 동물 조각(sculpture) 작품들 중 한 조각, 부분(piece)을 소개한다는 의미다. 인기 드라마 펜트하우스에 나온 작품 'Re-Genesis'의 작가 정의지, 화성시 대표 조각가 전덕제, 기네스 북에 등재된 작품 'Fortune Bear'의 장세일 작가가 참여한 이번 전시는 스테인리스 스틸, 돌, 양은 냄비 등 다양한 재료로 동물을 표현한 조각 작품을 통해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다채로운 시각예술의 세계를 선보인다. 인간의 다양한 모습을 동물에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며 동화 같은 서사구조를 담은 석조 작품부터 인간이 변화시킨 환경 속에서 진화한 동물의 모습을 상상하여 조각한 작품, 버려진 일상의 오브제를 동물 형상으로 조각화한 작품까지 폭넓은 주제를 담고 있으며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삶을 제고하는 메시지를 전한다. 트렌디한 작품을 보다 가까운 곳에서 관람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본 전시는 5월 12일부터 6월 13일까지 진행, 관람객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연제** 2021년 5월 12일 ~ 6월 13일  
(5월 19일 휴관)  
**어디서** 동탄복합문화센터 동탄아트스페이스  
(화성시 노작로 134)  
**문의** 031 290 4634, 4637

화성 예술가(街)의 공연 Day  
흥미진진 클래식 이야기



매월 마지막 주 문화가 있는 날, '우리 동네에서 가볼 만한 곳은 없을까?' 한다면 다양한 주제와 테마가 있는 화성시 밀착 맞춤형 공연 <화성 예술가(街)의 공연 Day>에 함께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번 5월 공연 프로그램으로는 어린이와 함께하기 좋은 <흥미진진 클래식 이야기>가 오는 5월 26일 누림아트홀에서 펼쳐진다.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가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김수연이 해설을 맡아, 어렵다고 생각했던 클래식 음악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낼 예정이다. 국내에서 활발한 연주 활동을 하고 있는 앙상블 '가일 플레이어즈'가 비발디의 '사계', 엔니오 모리코네의 '시네마 천국' 외 다수의 곡을 생생한 실내악 음악으로 함께 선보인다. 본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는 「지역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초등학교 이상 관람 가능하며 티켓 가격은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전석 5천 원으로 관람할 수 있다.

**연제** 2021년 5월 26일 19:30  
**어디서** 모두누림센터 누림아트홀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5)  
**문의** 1899 3254

봄에 떠나는 크리스마스 모험

##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어린이 무용극 <루돌프>



© Photo by Aiden Hwang

가정의 달을 맞이해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즐길만한 어린이 무용극이 누리아트홀로 찾아온다. 어린이 무용극 <루돌프>는 국립현대무용단 이경구 안무가가 구연동화와 현대무용을 접목시켜 어린이들도 무용을 쉽고 재미있게 느낄 수 있도록 창작한 작품이다. 겁 많은 원숭이 루돌프가 새로운 세상에서 친구들을 만나며 성장하고 꿈을 향한 모험을 떠나는 여정을 그린다. 말과 노래 때로는 랩까지 선보이며 풍부한 색감과 오감을 자극하는 소리를 통해 어린이 관객들에게 무한한 상상력과 용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공연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는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선정작으로, 본 공연의 일부 좌석은 문화예술 소외계층에게 제공된다. 48개월 이상 관람 가능하며, 티켓 가격은 전석 1만 원이다.

**언제** 2021년 5월 29일 14:00, 17:00  
**어디서** 모두누리센터 누리아트홀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5)  
**문의** 1899 3254

## 눈으로 귀로 손으로 체험하는 전시 인터랙티브 미디어 전



©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우리는 호기심 많은 아이들에게 전시는 눈으로만 보는 것이라고 말해주곤 한다. 아이들이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손으로 만져보고 귀로 여러 소리를 들어보며 체험하는 전시가 있다면 얼마나 신나는 예술 체험이 될까?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2, 3층에서 진행 중인 인터랙티브 미디어전에서는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반응하는 신기한 미디어 전시가 진행 중이다. 내 그림자의 움직임을 보며 화면 속의 공을 튕겨보고 또 들리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관찰해보는 '컬러풀 댄스', 숲속과 같은 미디어 화면을 톡톡 두드리며 꽃과 나무, 나비의 움직임을 보고 숲과 새의 소리를 듣는 '두드리는 숲'을 만나보자.

**언제** 상시  
**어디서**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146)  
**문의** 031 5183 3200

##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예술작가 연계 기획전 자라는 숲



©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도심 속 어린이들이 '나와 자연이 연결되어 있다'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에서 전시 중인 <자라는 숲>을 통해 어린이들은 '나와 숲의 관계'를 신비롭고 재미있게 느낄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예술작가 Craker(김화술, 김정훈)와 어린이의 창의력, 상상력이 만난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 작품이다. 어린이의 작은 그림이 미디어 기술을 만나 커다란 숲을 이루어, 전시장 내에서 숲 속의 낙엽 소리, 천이 그리는 바람, 나무가 자라는 모습을 경험할 수 있다. 어린이들은 숲속의 작은 모험가가 되어 새로운 경험과 이야기를 발견해보자.

**언제** 2020년 11월 23일 - 2021년 12월 27일  
**어디서**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146)  
**문의** 031 5183 3200



현충사당 건립과 연극 <두령바위>

1971년 순국제암29선열유족회는 순국선열의 애국애족정신 유업을 선양하고 후세에 전승하기 위하여 현충사당 건립을 계획하였다. 당시 정부의 지원으로 현충사당 건립은 추진력을 얻게 되었고, 건립기금을 마련하고 제암리 고주리 화살사건을 알리고자 연극 <두령바위>를 공연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을 중단하면서 이미 공사에 착수했던 현충사당의 건립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지금도 유족들은 순국선열의 정신을 후대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며 현충사당 건립을 염원하고 있다.

현충사당 건립 사진 1971년 주황 (현충사당 건립) (제암리, 고주리, 제암리, 제암리, 제암리, 제암리, 제암리, 제암리, 제암리, 제암리)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 개관 20주년 특별전

[일따]

그들이 있고 우리가 있다

100여 년이 지난 지금, 1919년 4월 15일의 제암리·고주리 학살사건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음은 이면에 많은 노력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번 전시는 순국선열을 기억하고 독립 정신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노력했던 유족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뜻을 함께 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글 오송이(독립운동문화팀) 사진 차유나(기획홍보팀), 독립운동문화팀

“

다른 거 뭘 바라겠어요? 바라고 독립운동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분들이? 후손들에게 잊혀지지 않게, 그거나 이렇게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 고주리 순국선열의 후손 김연목

”



1919년 봄, 그날을 마주하다

1919년은 독립운동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일제는 화성의 격렬한 독립운동에 대한 보복으로 화성 일대에 방화와 학살을 자행했다. 4월 15일, 일제 군경은 제암리와 고주리에도 들이닥쳤고 독립운동가를 학살하고 마을을 불태웠다. 그날을 마주한 제암리와 고주리는 삶의 터전과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어느 때보다 시린 봄을 마주하였다. 우리는 제암리·고주리의 독립운동과 순국선열의 순국 상황, 폐허가 된 화성과 제암리, 그리고 유족들의 삶을 자료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 그들이 있다

학살사건 이후 마을을 떠난 사람들도 있지만 자리를 지키며 여전히 그날을 선명하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뜻이 있는 유족들이 모여 '순국제암29선열 유족회'를 발족하고 순국선열을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현충사당 건립과 연극 <두령바위> 공연, 영화 <두령바위> 제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암리·고주리 학살사건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순국제암29선열 유족회'를 상징하는 자료와 연극·영화 <두령바위>의 흔적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현재까지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를 이루어지지 않았고, 유족들은 광복회 활동, 유물 기증 등을 통해 오늘날에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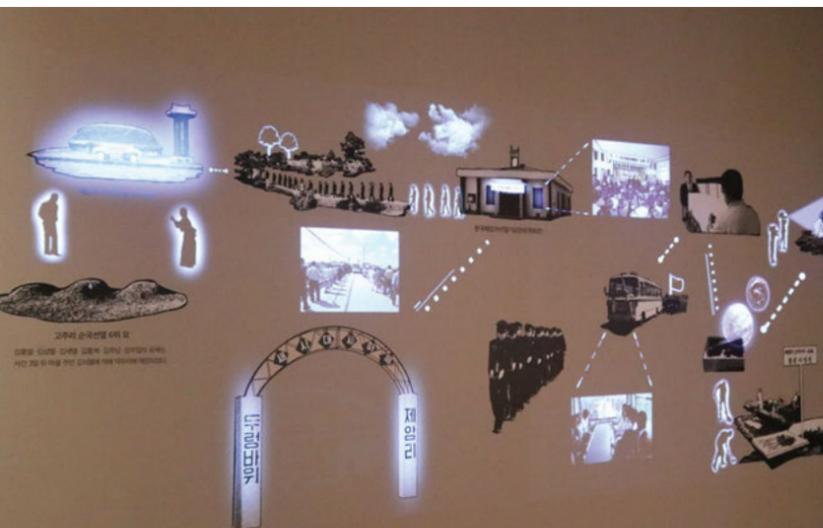
## 우리가 있다

제암리·고주리 학살사건은 1982년 유해발굴로 인해 재조명되고 제암리 학살 현장이 사적 제 299호로 지정되면서, 우리의 이야기로 확산되는 현재에 이르렀다. 1982년 9월 21일, 유해발굴을 위한 조사가 시작되었고 유족과 마을 주민의 증언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9월 24일에 유해가 모습을 드러냈다. 유해발굴부터 합동묘역에 안장되기까지의 과정을 매핑 프로젝트 영상을 통해 한눈에 담아 갈 수 있다. 제암리·고주리 학살사건이 오늘에 기억되기까지는 유족들은 물론, 종교계, 문화계, 시민들의 노력이 있었다. 각자의 방식으로, 그러나 한 뜻으로 잊지 않고 기억하고자 하는 그동안의 과정과 순국선열들이 바랐던 것처럼 평화의 미래를 그리기 위한 현재의 활동들을 담아 함께 기억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 우리가 함께 있는 기억탑

순국선열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이 현재에 이르렀듯이 미래에도 우리의 이야기가 닿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시 마지막 공간인 '우리가 함께 있는 기억탑'에 남길 수 있다. 과거와 미래를 이을 현재의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다음 세대에 무엇을 전할 것인가 생각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인따] 그들이 있고 우리가 있다

전 시 명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 개관 20주년 특별전 < [인따] 그들이 있고 우리가 있다 >

전시일시 2021년 4월 15일(목) 이후 10:00-18:00 ※코로나19 단계에 따라 변동, 홈페이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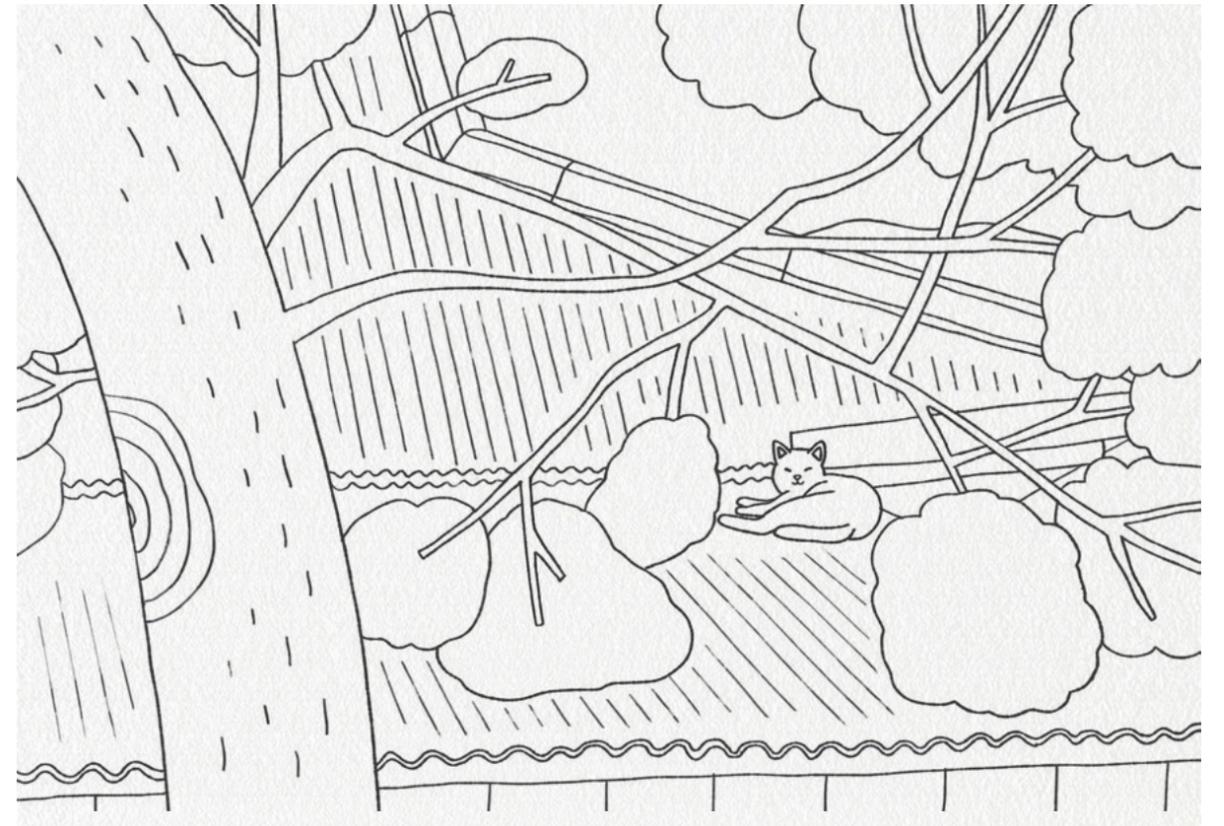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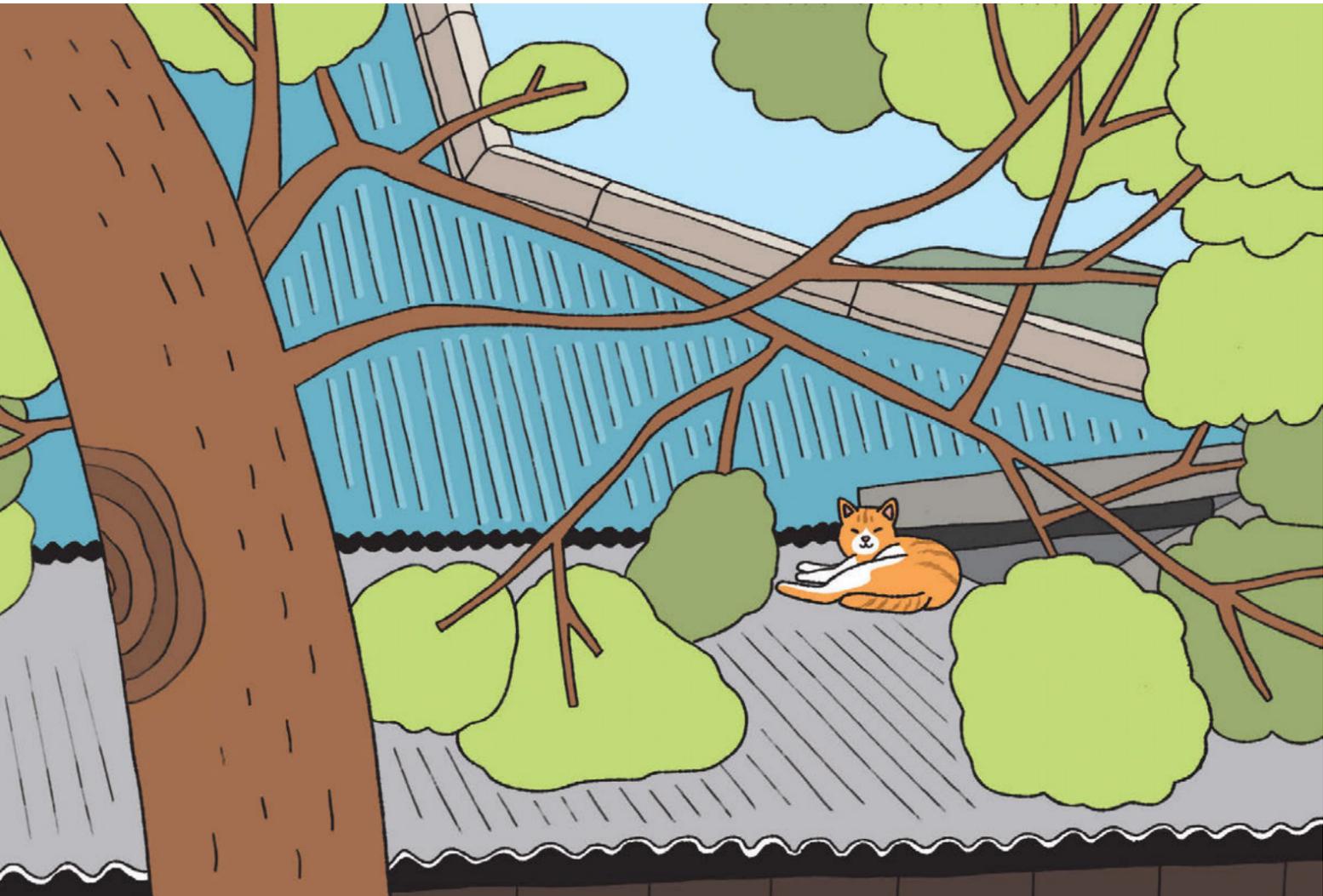
전시장소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 제2전시실 (화성시 향남읍 제암길 50)

관람문의 031 366 1604 / www.jeam.or.kr

## 화성을 그리는 방법 고요한 것들이 누리다

찬란한 햇살에 늘어지게 잠을 자던 지붕 위 고양이.  
가까운 제암리 '3.1 운동 순국유적지'의 서러움이 무색해진다.  
이 봄에 뼈마디조차 긴장을 다 풀라고, 그림자조차 무거운 날  
들에 한 번쯤 힘 빼라고 알려준다. 봄은 고요하고 힘 빠진 것  
들이 누리는 호사다. 그날, 제암리의 봄은 한잠 늘어지게 난  
후 다시 나비처럼 날아오를 찰나이자 시작이었다.

에디터 김은주 일러스트 권석란



### <화성시 향남읍 제암리의 어느 마을>

3·1독립만세운동 당시 일본 헌병이 제암리(두령바위) 주민을 집단학살한 봄이 왔다. 사람과 가축, 가축, 곡식 타는 냄새와 연기가 10여km 밖까지 퍼져 나갔다는데, 상처가 봄을 가린다. 그러나 세월은 가려진 것들을 들춰낸다. 새싹과 바람, 옆 사람 그리고 지붕 위 고양이 한 마리로.



© 화성시문화재단

### 채색 방법

재료 아이패드 또는 종이, 유성 펜, 컬러 마커, 색연필

#### 1 상상하기

찬란한 햇살 속 따뜻해진 지붕 위,  
늘어지게 낮잠 자고 있는 고양이를  
만나는 상상을 해본다.

#### 2 선으로 그리기

커다란 나무 기둥과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듯한 나뭇잎들,  
지붕의 규칙적인 선들을 스케치한다.

#### 3 채색하기

햇빛에 반사된 파란색 지붕과  
회색 슬레이트, 나뭇잎을  
다양한 색으로 칠한다.

## 화성시 꽃지도를 따라 걸다가, 쉬다가

봄이 왔다는 신호는 꽃집 앞에 있는 화분을 보며 느낀다. 이른 봄바람에 아직 쌀쌀한 기운이 남아있지만, 푸르고 아름다운 색깔과 냄새는 막을 수 없다. 화성시 동탄과 병점, 봉담의 거리에서 봄을 가장 빨리 불러오는 꽃집들을 만나보자. 아차! 꽃그늘 아래 숨은 나비를 만날 수도 있다.

글 최화정 사진 김현석



© 라라플라워

### 센트럴파크의 라라랜드

#### 라라플라워 🌸

노란 문을 열면 영화 '라라랜드'의 미아와 세바스찬의 꿈과 사랑이 활짝 쏟아진다. 찬란한 봄의 시작을 알리고 바보 같은 사람들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곳, 라라플라워. 문득, 기억하고 싶은 사람과 축하가 필요한 곳이라면, 한 다발의 꽃으로도 충분하다. 잊지 못할 추억의 모든 곳에 꽃이 있었고, 사랑과 축하 또한 넉넉할 것이다.

A. 화성시 동탄공원로3길 4-24 1층

O. 화~금 10:30~20:00, 토·일·공휴일 10:30~17:30, 월 휴무

### 꽃과 일상을 함께하는

#### 버터플라이 아틀리에 🌸

나비와 벌들이 쉬어가는 꽃그늘 아래 사람이 쉬어가는 그들이 생겼다. 꽃집은 꽃을 파는 곳이지만, 쉬었다 다시 일어날 힘을 '버터플라이 아틀리에'에서 얻는다. 아틀리에에서 맞는 바람은 다소곳하고,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이 살만하게 한다. 봄이면 누군가에게 꽃과 엽서를 보내보자. 가슴속의 봄을 선물해 보자.

A. 화성시 봉담읍 참샘길 33 해오름마을봉담그대가 2단지 상가 112호

O. 월~일 11:00~20:00, 평일 유동적 휴무



© 버터플라이 아틀리에

### 꽃, 위로와 휴식을 주다

#### 노아플레르 🌸

매일 가고 싶은 꽃집이라 불리는 감성 꽃집 '노아플레르'. 각각의 감성에 맞춰 색깔을 갖춘 꽃바구니를 선물해 보자. 고단한 일상에 수고한 나에게, 마음을 전하지 못해 아쉬운 누군가에게, 아직 어린 조카와 응원이 필요한 동생에게 넉넉한 봄의 한 무늬를 건네 보자. 꽃처럼 아름다운 미소로 화답 받을 테니.

A. 화성시 향남읍 행정서로1길 48 그린빌 1층

O. 화~일 10:30~19:00, 월 휴무



© 노아플레르



The  
**하다**

함  
 께  
 하  
 다

# 화성시문화재단 사람들 연결하는 사람들



수신자가 와이파이 신호를 더 멀리서 받을 수 있도록 연결자들은 외장 랜카드와 연장선을 찾는다. 무선 랜카드와 내장 랜카드를 뒤졌다가 결국 무선 랜카드<->USB연장 케이블<->USB허브<->컴퓨터 순으로 목적에 도달한다. 화성시문화재단에서 <->의 역할을 어떻게 해내고 있는지 두 신입사원을 만나 빠르고 강력한 연결 비법을 물어보자!  
글 최화정 사진 김영삼

## 총무팀 대리 김지윤, 김솔

### 자기소개를 해 주세요.

**김지윤(이하 윤)** 심리학을 공부하다가 공연 덕후가 되어 예술경영에 입문했던 욕심 많은 김지윤입니다. 재단에 입사한 지는 이제 1년 5개월 차네요.

**김 솔(이하 솔)** 시민 1인으로 화성시 문화활동을 했던 김솔입니다. 큰 포부를 가지고 재단에 입사했어요.

### 어떤 계기로 화성시문화재단에 입사했나요?

**윤** 공연예술경영을 전공하고 연극, 축제 등 현장을 다니는 것을 좋아했어요. 졸업 후 '안산국제거리극축제'에서 거리예술에 흠뻑 빠지기도 했어요.(웃음) 동탄에 살면서 동탄복합문화센터를 이용하다가 화성시문화재단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에도 홈페이지를 통해 재단에서 다양한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2020년에 입사할 때는 축제팀에서 일했는데 올해 총무팀으로 발령 받았 습니다. 아직은 적응 중입니다!

**솔** 경제학을 전공하면 보통 은행원이나 투자회사를 생각해요. 대학 졸업 후 문화 분야에 관심이 생겨 화성시문화재단 관내 시설인 화성시생활문화센터에서 생활문화기획자 양성과정을 들으며, 전문 적으로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재단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입사 후 총무팀으로 배정되 었습니다. 두려웠어요, 실수할까 봐. 하지만 8개월 잘 버텼습니다(웃음)

### 총무팀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나요?

**솔** 재단 직원들의 역량 강화 교육을 담당하고 있어요. 제가 편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직원 각각의 역량 강화에 영향을 미친다니 보람을 느끼기도, 부담스럽기도 해요.

**윤** 저는 직원 근태, 복지 등을 담당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총무팀이 큰 움직임이 없는 부서라고 생 각했어요. 최근에는 코로나 대응과 관련한 업무가 많아졌지만요. 총무팀에서의 업무가 초반에는 익 숙해지지 않았는데, 업무를 해나가며 점점 350명의 재단 직원들이 보였어요. 저도 그중 한 명이고 요. 저의 말 한마디와 행동들이 전체 직원들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면 게으름 피울 시간이 없 네요.



**입사 전, 후 문화재단에 대한 시각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윤** 이전에는 창작자 관점에 더 가까웠다 보니, 문화재단의 여러 가지 역할 중 예술인 지원과 같은 성격의 사업들을 주로 떠올렸었어요. 실제로 일을 하고 보니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어떻게 만나도록 할지, 그 전달 과정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보게 된 것 같아요.

**솔** 문화재단 사업에 참여할 때는 직원들이 자유로운 걸 상상했는데, 제가 직원이 되니 또 다른 모습도 보게 돼요. 즐거운 사업이라도 예산, 행정 절차, 시민과의 소통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주민의 입장을 잘 이해하는 직원이고 싶어요.(웃음)

**화성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의 특징이 있을까요?**

**윤** 지리적으로 넓어 재단에서는 동서부 간의 문화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넓은 지역인 만큼 생태자원과 문화자원이 많으니, 이 장단점을 잘 살려 화성시 고유의 문화예술 콘텐츠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솔** 맞아요. 서남부가 문화소외지역에 속하죠. 마을만들기 활동을 하면서 보니 소외된 지역일수록 어르신들이 많고, 문화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워하세요.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쉽고, 가깝게 참여할 수 있을지 앞으로 더 고민해 보려고요. 그래도 우선은 화성을 잘 아는 것이 먼저겠죠? 속속들이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만약, 문화예술 기획자가 된다면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을까요?**

**솔** 화성시 마을 곳곳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고 싶어요. 주민들이 가깝게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문화소외지역으로 갈수록 문화예술이 특수한 '일'이 되고 말아요. 하지만 저는 누구나 가깝게, 언제든지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윤** 두 가지나 있는데 말해도 되나요?(웃음) 먼저 올 라운드 플레이어(all-round player)가 되고 싶어요! 문화예술이라는 큰 범주 안에서 공연예술과 시각예술, 예술행정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넓고 넓게 골고루 통달하는 사람이에요. 덧붙인다면 길게~도 포함되겠네요.(웃음) 끝으로, 복합문화공간도 만들고 싶습니다. 그 공간에서 전시, 공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마음껏 기획하고 실행하는 거죠. 진입장벽을 낮춰 누구나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다면 좋겠어요. 어쩌면 두 기획을 합쳐 올 라운드 플레이어가 되어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면 인생, 참으로 재밌겠어요!

**이번 호의 주제는 '다시(RESTART)'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윤** "조급해하지 마!" 새로 시작했을 때는 다들 처음이니까 못하는 게 정상이고, 실수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나 자신을 다그치게 되고 조급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스스로 '곧 잘하게 될 거야', '지나갈 거야' 하면서 나를 다독여 가면서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해봤으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거든요. 누군가가 새로운 시작을 했을 때,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내 노하우나, 경험을 알려주고 전달해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사람 스스로 본인을 다그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솔** 저는 아마 35살쯤? 또 다른 시작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웃음) 동생이 은공예를 해요. 저도 한지공예 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때쯤이면 저만의 공예 공간을 만들어서 공예가로서 또 다른 시작을 하고 있을 상상을 해봅니다.(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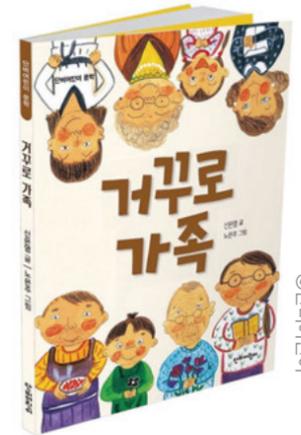
## 정남도서관 5월 북 큐레이션 가족에 대하여



한 해 중 유난히도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로즈데이, 스승의 날... 이 모든 특별한 날들이 모여 있는, 내 곁의 사람들에게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날들이다. 책과 함께 가족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그 소중함이 더욱 깊어지지 않을까. 정남도서관 5월 테마 <가족에 대하여> 북 큐레이션을 소개한다.

글 차영은(기획홍보팀)

### 어린이를 위한 가족 이야기 《거꾸로 가족》, 신은영, 단비어린이, 2019



“  
선생님, 또 울어요? 우리 아빠가 그랬는데요. 남자는 태어나서 딱 세 번만 우는거래요.  
그런데 선생님은 왜 만날 울어요?

—  
왜 남자는 자주 울면 안 되는 거지? 왜 남자는 늘 씩씩해야 하지?  
우리 여자, 남자이기도 하지만, 다 같은 사람이잖아.

그러니 선생님처럼 감정이 풍부한 남자는 자주 운단다. 물론 남자보다 더 씩씩한 여자도 있지.  
선생님은 남자답기보다 나, ‘반대로’ 다운 사람이 되고 싶구나. (본문 23, 24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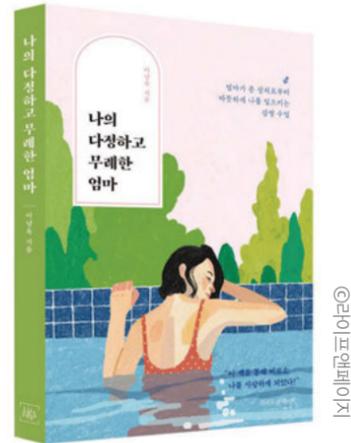
”

내 어린 시절, 분홍색은 ‘여자색’, 파란색은 ‘남자색’이었다. 분홍색 옷을 입고 오는 남자아이는 ‘여자같이 입었다’며 놀림을 당하기 일쑤였다. 그렇게 나는 성 고정관념을 학습한 채 자라왔을지도 모른다. 몇 해 전 어느 날 보게 된 미국의 한 생활용품 브랜드의 여권신장 캠페인 ‘올웨이즈(ALWAYS)’의 실험 영상은 내겐 다소 충격적이었다. 실험은 다양한 성별·연령층을 대상으로 “여자아이처럼 달려보라”는 주문을 한다. 대부분은 두 팔을 흐느적거리고 연약한 척 달리는 모습을 표현했다. 그런데, ‘진짜’ 여자 어린이아이들은 달랐다. ‘여자처럼’ 하라고 할수록 더욱더 힘차게 두 팔을 움직이며 마치 선수처럼 뛰었다. ‘여자처럼’이라는 말이 그 아이들에게는 ‘진짜 나처럼’, ‘최선을 다하여’라는 뜻이었던 것이다.

《거꾸로 가족》의 모습은 우리가 가진 성 고정관념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축구하는 엄마, 전업주부인 아빠, 힘이 센 고모, 긴 머리의 삼촌, 꽃을 좋아하는 할아버지, 조용한 남자아이 주인공 ‘바로’, 씩씩한 여동생. 다른 가족과는 ‘거꾸로’인 가족이지만 바로네 가족은 각자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기에 행복하다. 남자라면 해야만 하고, 여자이기 때문에 못하는 일들의 구분을 깨고, 자신 있는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 엄마라는 그 이름

《나의 다정하고 무례한 엄마》, 이남옥, 라이프앤페이지, 2020



오늘도 이런 엄마 앞에서 무너지는 당신에게 권합니다

- ☑ ‘엄마니까 이런 말 하는 거야’란 말로 무자비한 비수를 쫓는다
- ☑ 웬지 모를 죄책감으로 엄마 곁을 떠날 수 없다
- ☑ 나는 안 보이는 걸까, 매번 다른 형제자매에게만 퍼준다
- ☑ 일방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하소연하는 엄마에게 탈출하고 싶다
- ☑ 아이를 낳아보니 엄마에 대한 미움이 더 솟구친다

‘나’라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마주하는 사람, 엄마. 엄마의 존재는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가족 상담치료의 대가이자 국내 가족 상담분야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는 이남옥 교수가 전하는 자기 치유와 관계 회복의 심리학 도서이다. 저자 이남옥 교수는 30년 넘게 상담을 통해 수십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간의 가장 본능적이고 근본적인 관계인 ‘엄마’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다. 그는 엄마라는 이름 앞에서 수많은 감정에 휩싸이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짚어내야 할 마음의 기억이 있다고 말한다. 우리 삶을 건강하게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엄마를 원망하거나 외면하면서 상처를 반복하는 것이 아닌, 무의식 아래 흐르는 관계의 긍정적인 힘을 발견하고 그 경험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온전하게 나 자신을 찾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엄마에 대한 분노와 원망, 죄책감이 남아있다면, 그런 감정들을 벗어던지고 온전히 ‘나’에 집중하고,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찾길 바란다.

## 새로운 가족의 탄생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김하나, 황선우, 위즈덤하우스, 2019



1인 가구는 원자와 같다. 물론 혼자 충분히 즐겁게 살 수 있다. 그러다 어떤 임계점을 넘어서면 다른 원자와 결합해 분자가 될 수도 있다. 원자가 둘 결합한 분자도 있을 테고 셋, 넷 또는 열들이 결합한 분자도 생길 수 있다. 단단한 결합도 느슨한 결합도 있을 것이다. 여자와 남자라는 원자 들의 단단한 결합만이 가족의 기본이던 시대는 가고 있다. 앞으로 무수히 다양한 형태의 ‘분자 가족’이 태어날 것이다. 이를테면 우리 가족의 분자식은 W2C4쯤 되려나. 여자 둘 고양이 넷. 지금의 분자 구조는 매우 안정적이다. (본문 12P)

1인 가구 900만의 시대. 1인 가구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대한민국 사회의 전통적인 가족 개념은 점차 변화하고 있다. 1인 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이들은 셰어하우스 등 다양하고 새로운 가족 형태와 문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20~30대들 사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도서,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가 있다. 부제는 ‘혼자도, 결혼도 아닌, 조립식 가족의 탄생’이다. 카피라이터 김하나와 잡지 에디터를 오래 했던 황선우, 두 여성은 4인 가족이 기준인 이 나라에서 더 이상 ‘싱글 라이프’로 살아가기 아쉬워하다 싱글로 남는 것도, 결혼도 아닌 각자 키우던 고양이 두 마리와 함께 ‘조립식 가족’을 탄생시킨다. 싱글로도 10년을 넘게 잘 살아온 두 여성이 어떻게 같이 살게 되었는지, 두 ‘원자’가 결합해 ‘분자’ 가족이 되었는지 현실적인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 4인의 가부장적 핵가족 형태를 ‘정상’으로 보는 사회는 이미 변화했다. 이제 새로운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 화성인의 봄

'아직 날이 추우니까. 따뜻해지면'하며 많은 일들을 미뤘던 지난 겨울날. 추울까 한껏 웅크리고 밖을 나선 어느 날, '아, 봄이구나!'하며 움츠린 어깨를 풀었다. 지난 봄날의 추억들이 떠오르고 앞으로의 봄날을 기대하는, 화성인들의 봄날이 궁금해졌다.

### 당신의 봄날은 어떤 모습인가요? 봄날의 추억을 이야기해주세요

#### 조혜미 | 직장인 친구와 함께한 벚꽃 드라이브

봄이 왔으니 벚꽃 나들이를 나가고 싶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나중을 기약하고 친구와 함께 드라이브 삼아 가평을 다녀왔다. 벚꽃 구경을 하지 못한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웬 일인지 가는 길에 생각지도 못했던 만개한 벚꽃터널이 펼쳐져 있었다. 시기상 서울은 벚꽃이 지고 있을 때였는데 북쪽이라 그런지 수 킬로미터로 이어진 벚꽃들이 화려하게 피어있었다. 바람도 불어 꽃비가 떨어지는데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워 동영상도 찍고 사진도 왕창 찍으며 친구와 함께 신나게 웃었던 기억이 난다.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내년 봄에는 어떤 추억을 만들게 될지 기대되는 한 해를 보내고 싶다.

#### 양혜민 | 주부 달라진 봄

아가씨 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그저 길가에 피던 이름 모를 꽃과 나무들. 시간이 흘러 아줌마가 되어 보니 꽃과 나무들이 어찌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모른다. 어렸을 때는 꽃보다 예쁜 나이기 때문에 꽃이 예쁜 걸 모르다더니 이제는 나이가 들어 나보다 꽃들이 더 아름답고 예뻐 보인다. 하루의 시간은 느리지만 점점 세월은 빨라지니 놓쳤던 것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한다. 그동안의 나는 엄마, 아내, 딸, 며느리로서의 바쁜 나날로 아름다운 계절의 변화들을 즐기지도, 느끼지도 못 했던 것 같다. 이제는 수많은 역할들을 조금은 내려놓고 더 나를 위해 살아보려 한다. 그때는 또 새롭고 달라진 봄이 올 것 같다.

### 강봉기 | 직장인 2021년 봄, 소중한 지금 이 순간

코로나19와 함께한 지 어느덧 1년이 넘어가는 즈음 반갑지 않은 봄 손님 황사까지 찾아와 봄날의 설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어느 봄날이었다. 영화나 소설에서 늘 그렇듯 극적인 효과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을까? 그날따라 퇴근시간도 늦어져 밤 11시가 넘어서야 불이 꺼진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어느 때처럼 어둠 속에서 반가운 얼굴로 뛰어나와 날 맞아주는 이는 2019년 1월 3번째 파양 후 가족이 된 4살 암컷 웰시코기 '비비'였다. 늘 하루의 고단함을 마법처럼 녹여주는 그 반가운 인사로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하려 몸을 낮추는 순간, 조금은 낯선 모습의 비비를 보게 되었다. 얼굴은 벌에 쏘인 것 마냥 통통 부어있고, 눈은 눈물이 그렇그렁 한데 마치 아픈데 말을 할 수 없으니 답답한 듯 킁킁대는 소리만 연신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개를 키워보고 처음인데다 이런 경험이 없었기에 순간 머릿속이 하얘져 어버버하며 겨우 스마트폰을 꺼내 야간진료가 가능한 동물 병원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어찌어찌 찾아서 전화 후 급히 방문한 동물 병원의 수의사 선생님께서는 급성 알레르기로 보이나 다행히 크게 심하지 않으니 주사를 한 대 맞고 약을 먹인 뒤 아침까지 상태를 지켜보면 호전될 거라고 하셨다. 그제서야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비비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다시 집에 와 졸릴 때면 찾아가던 애착 방식에 비비를 눕혀주고서 씻고 나왔더니 처음 우리 집에 온 그날처럼 온화하게 잠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그날따라 그곳을 바라보는 기분이 참 묘했다.



애완동물과의 삶이 대중화된 요즘, TV 프로그램이나 유튜브를 통해 애완동물과의 만남부터 이별까지를 나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공감하며 어떤 순간에는 "와~ 정말 가족같이라고는 하지만 저렇게까지 이별의 아픔이 클까? 나는 어떨까?" 스치듯 생각했던 나였는데 말이다. 오늘 일로 알레르기에 소스라치게 놀라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나는 이미 그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며 비비 곁에서 자는 등 마는 등 하며 아침을 맞이한 나는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비비를 살펴 보았다. 참 다행스럽게도 붓기가 조금 진정된듯하고 기온도 조금은 돌아온 모습이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난 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고 하는듯한 완전한 봄날에 비비와 함께 산책을 나갔다. 그날 그 일이 있어서였을까? 항상 주말이면 나왔던 산책길이고 그냥 조금 화창한 봄날이었을 뿐인데 마치 화사한 꿈길처럼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했다. 그 언젠가 들었던 말처럼 행복이란 마음먹기 나름이란 생각이 들었다. 어찌 보면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저 작은 일상의 이벤트가 지나갔을 뿐인데, 지금 비비와 함께 걷고 있는 이 순간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한 봄날의 순간이 되어 나를 찾아왔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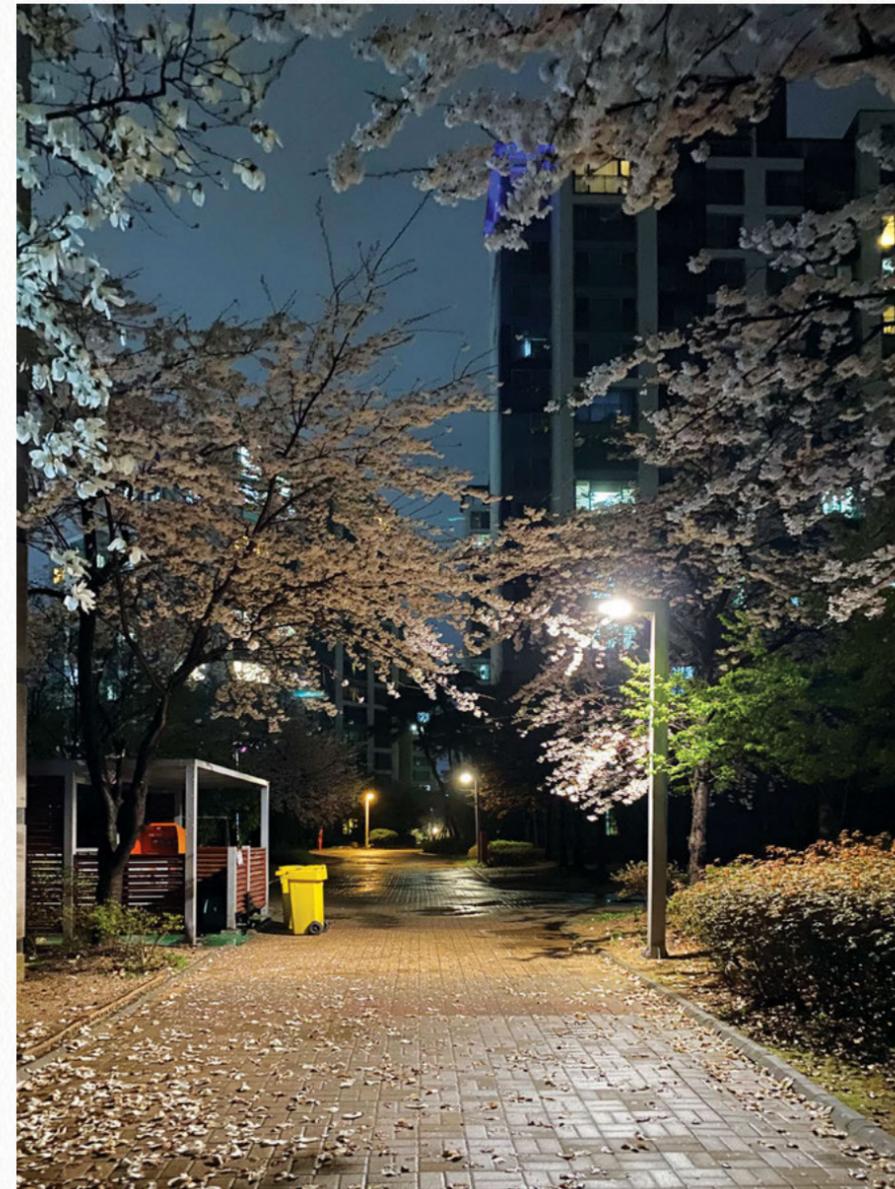
화성시문화재단  
공식 블로그

'PEOPLE'은 주제와 관련된 독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코너입니다. 이야기 또는 그림, 사진과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음 PEOPLE 독자공모는 화성시문화재단 공식 블로그를 통해 6월 첫 주 공지할 예정입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화성시문화재단의 특별한 기념품과 함께 《화분》 지면에 실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윤희옥 | 직장인**  
**오산천 산책로에서 이른 봄날**

올해도 봄이 왔다. 움츠린 일상처럼 공공 얼었던 나무에게 초록 새싹이 돋았다. 우리 일상에도 새싹이 돌아나려는지 올해 봄은 유난히도 반갑다. 하루라도 빨리 봄을 맞이하고 싶어 이슬비 내리는 아침 산책길에 나서본다. 비가 그치고 파란 하늘과 초록빛 새싹들이 맞이해준다. 올해도 어김없이 봄이 오려나보다.



**박지현 | 직장인**  
**우리 동네, 내가 사랑하는 길**

봄이 되면 제일 예뻐지는 우리 동네. 수년간 변함없던, 내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소다. 이곳을 지나갈 때마다 지난봄들이 생각난다. 내가 기억하고 바라보는 너는 똑같지만 지금의 나는 예전과는 많이 달이 달라져 있겠지. 매년 반복되는 봄 속의 내 모습은 어땠는지 묻고 싶은, 오래오래 추억을 쌓고 내 봄을 함께 하고 싶은, 이 길 이곳.

# 5.6 화성시문화재단 문화소식

글 차영은(기획홍보팀) 사진 화성시문화재단



## 함께 만들어가는 즐거움 전시 제부도 예술섬 프로젝트

제부도 해안가에 위치한 제부도아트파크(화성시 서신면 해안길 322)에서 4월부터 11월까지 화성시 지역 작가와 주민, 방문객이 함께하는 특별한 전시가 열렸다. 화성시문화재단의 '2021 제부도아트파크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선정된 화성조각가협회의 <제부도 예술섬 프로젝트>가 지난 4월 시작된 것. 현재 제부도아트파크의 외벽은 지역 작가들이 그린 그림들로 채워져 귀여운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첫 번째 전시 '제부도 친구들&제부도 스케치북'은 흰발농게, 망둥어, 갯지렁이, 주꾸미, 철새 등 제부도의 대표 생물과 풍경, 문화자원을 위트 있게 표현한 드로잉 벽화 전시로, '사랑비가 쏟아진다', '제부도 친구들', '나는 빨간 등대야'라는 소제목으로 아트파크를 찾는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재미를 선사하고 있다. 또한 '제부도 스케치북' 외벽은 방문객을 위한 공백으로 방문객들은 각자의 특별한 그림과 메시지로 스케치북을 채워가고 있다. 제부도에 방문한다면 아트파크에 들러 귀여운 그림과 함께, 또 시원한 바다와 함께 추억을 남기고, 스케치북에 나의 흔적을 남겨보는 것은 어떨까?

문의 지역문화팀 031 290 4692

**Project .01**  
제부도 친구들&스케치북  
2021. 04. - 11.

**Project .02**  
제부도 행복 [JAP]  
2021. 05. - 10.

**Project .03**  
바람: 바라는 마음, 공기의 흐름  
2021. 05. - 12.

**Project .04**  
재미부름(美眉扶蘇)  
2021. 06.

**Project .05**  
제부도생명[島]  
2021. 08.

화성시 중견 작가와 신진 작가의 만남. 실내 기획 전시

제부도아트파크에 희망 메시지 앞으로 완성하는 시민 참여 프로젝트

아름다운 제부도 바다에 아트 벤치의 조형 작품이 함께하는 야외 조각전

화성시 중견 작가와 신진 작가의 만남. 실내 기획 전시

인간과 자연 생명체와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 실내 기획 전시

제부도 예술섬 프로젝트

문의 : 031-290-4692

주최 : 화성조각가협회 ● 후원 : 화성시문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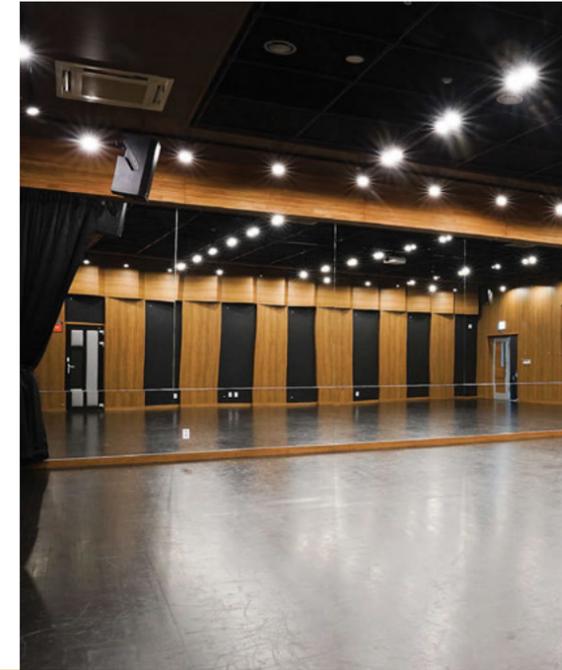
화성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도시  
화성시, 법정 문화도시 지정 도전



화성시문화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문화 자산을 활용해 지역 스스로 도시의 문화 환경을 기획·실현하고, 도시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화성시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제4차 예비 문화도시 지정 공모사업에 도전하고자 지난 2월 문화도시추진단을 구성해 계획 수립을 위한 다양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반석아트홀에서 안영노 대표(안녕소사이어티/총괄코디네이터)를 초청하여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이해와 행정의 역할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후 4월 16일 개최된 제 20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 '화성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상정되면서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제도적 틀을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문화도시추진단은 시민이 꿈꾸는 화성형 문화도시의 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다양한 층위의 시민들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의견을 나누는 시민 라운드테이블을 운영 중이다.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보다 심층적인 의제발굴과 구체적 실행방안 모색을 위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였다. 공모 신청을 통해 참가한 20여 명의 주민협의체에서는 도시적 차원에서 문화, 환경, 교육,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점과 대안을 함께 모색해 완성도 높은 화성시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해나갈 예정이다.

화성시의 예술이 싹트는 곳  
아르코공연연습센터@화성 개관



지역 공연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공연 연습 공간 '아르코공연연습센터@화성'이 지난 5월 4일 개관식을 개최하고, 운영을 시작한다. 화성시문화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아르코공연연습센터@화성은 경기남부 최초의 공공 공연 연습센터로, 동탄복합문화센터 내 기존 다목적실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리모델링한 전문 공연 연습실이다. 대연습실(248㎡)과 중연습실(49.5㎡) 2개의 연습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음시설과 그랜드 피아노, 공연장 수준의 전문적 연습 장비가 갖춰져 있어, 공연 준비를 위한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화성시문화재단은 대관 운영을 통해 창작활동을 위한 거점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예술인들의 네트워크 구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기획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대관 접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5월 중 하반기(6월~12월) 정기대관 접수, 본격적인 운영은 6월 초 실시할 예정이다.

문의 공연지원팀 031 8015 8156, 8157

도심 속 지식의 숲  
화성시 왕배푸른숲도서관 개관



화성시 신규 공공도서관 왕배푸른숲도서관이 4월 29일 개관했다. 도서관은 동탄7동 왕배초등학교 맞은편에 위치하였으며, '도심 속의 숲'을 콘셉트로 자작나무 서가와 식물을 활용하여 실내 공간을 아늑하게 구성했다. 또한 태양광 설비 구축을 통해 생산된 에너지로 도서관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 공공건축물 전국 최초로 제로에너지 1등급을 획득하기도 했다. 내부는 어린이자료실, 종합자료실, 힐링 라운지, 미디어존 등 다양한 개방형 열람 공간을 갖추어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책을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미디어'를 특화 주제로 삼아 도서관 내 여러 스마트 기기를 비치하여 눈길을 끈다. 전자신문, 오디오북, 북큐레이션 등의 스마트 디스플레이를 통해 이용자가 직접 기기를 터치하며 체험해 볼 수 있으며 종합자료실에서는 태블릿을 대여해 E-book을 이용할 수도 있다.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왕배푸른숲도서관 031 372 4435

2021 화성시 생활시장 華(화)人(인)  
시민운영자 활동 시작



시민과 사서가 함께하는 팟캐스트  
북새통 시즌2



걷기 좋은 날, 만세길에서 만나!  
화성3.1운동만세길 역사해설 프로그램



공구, 사지 말고 빌려 쓰세요  
'일상의 나눔' 공구 공유 서비스



핸드메이드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화성시만의 수공예 특화 마켓형 문화행사 '화성시 생활시장華(화)人(인)'의 2021년을 기대해봐도 좋다. 지난 3월, 화성시생활문화센터는 올해의 화인마켓을 이끌어갈 시민운영자를 선발해 활동을 시작했다. 화인마켓은 화성시 생활문화 활동가들의 주인의식을 반영한 民(민) 주도형 운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지속적이고 자생적인 화성시 생활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시민운영자를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다. 시민운영자는 화성시에서 공방을 운영 중인 생활문화(수공예) 활동가로, 앞으로 화성시문화재단과 함께 화인마켓을 운영하게 된다. 모집 첫째 4명(4개 공방)으로 시작한 시민운영자는 2020년에는 11명(11개 공방), 올해 19개 공방의 21명으로 규모가 매년 확대됐다. 현재 이들은 월 2회 정기간담회를 운영하며 생활문화활동가 간 네트워킹 구축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 온-오프라인 화인마켓의 개선행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화인마켓은 5월 중순 '핸드아티코리아 2021(수원)'에도 12개 공방이 참여할 예정으로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생활시장화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화성시생활시장화인.kr  
문의 생활문화팀 031 8059 1696

화성시 도서관 팟캐스트 <북새통> 시즌 2가 지난 3월 시민결정으로 돌아왔다. '책(Book)으로 새롭게 소통하다'라는 의미의 팟캐스트 <북새통>은 사서와 시민이 함께 나누는 책 이야기를 도서관을 찾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도록 제작한 온라인 콘텐츠이다. 지난 2020년 시즌 1을 성황리에 마무리하고, 2021년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왔다. <북새통> 시즌 2의 주제는 '현실이 된 미래, 과학으로 세상 읽기'이다. 과학 분야 도서를 통해, 일상 속에서 자리 잡은 과학의 다양한 모습과 다가올 미래 사회에서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고 기대하는 이야기들을 나눌 예정이다. <북새통>에는 화성시 도서관 사서와 올해 새로 선정된 여섯 명의 시민 패널이 출연한다. 또한 이들의 이야기를 매끄럽게 이어갈 메인 MC로 '이 책으로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될까?'를 퍼낸 권인걸 작가가 선정되어 방송을 진행한다. 지난 3월 26일 첫 방송 이후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마다 업로드되고 있다. 네이버 오디오 클립(audioclip.naver.com)과 팟빵(www.podbbang.com)을 통해 구독하여 청취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www.hscitylib.or.kr  
문의 도서관기획홍보팀 031 8015 8276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잠정 중단되었던 '화성3.1운동만세길' 역사해설 프로그램이 지난 3월부터 제한적으로 운영 중이다. 화성3.1운동만세길은 1919년 4월 3일 우정·장안지역에서 있었던 만세운동 루트를 조사, 연구하여 약 60% 이상 복원한 지역의 문화유산으로, 현재 31km의 구간과 15개소의 유허지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31km 중 소요 시간에 따라 3개의 코스로 나뉘어 운영 중인 만세길 해설 프로그램은 2020년 새롭게 양성된 시민 해설가와 동행하며 화성3.1운동에 대한 이해와 역사적 의미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프로그램 참가는 사전예약을 받고 있으며, 프로그램 접수는 화성시통합예약시스템(reserve.hscity.go.kr)과 만세길 홈페이지(www.mansegil.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문화·교육 활동이 어려운 시기, 화성3.1운동만세길은 문화적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화성시 우정, 장안 일대 곳곳에 독립운동 역사의 길을 걸으며 화성지역의 독립지사 및 순국선열의 정신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

문의 독립운동문화팀 031 358 0301

집에 걸어놓고 싶은 액자를 구입하고 드릴이 없어 고민이 될 때! 딱 한 번 사용할 목적으로 살까 말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향남에 위치한 화성시생활문화센터에서 공구 공유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29일부터 연중으로 운영하는 이번 서비스는 화성시민 및 화성시에 소재하는 사업자 종사자라면 누구나 신청 후 화성시생활문화센터 목공 DIY스튜디오에서 2박 3일간 대여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운영시간(평일 10시부터 17시 30분까지) 내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대여하면 된다. 대여할 수 있는 공구는 유선인팩트드릴, 무선전동드릴, 그라인더, 에어타카, 수평계, 전선릴, 니퍼, 펜치, 양날톱, 롱로우즈, 경량몽키, 소켓렌치셋, 망치, 드릴비트세트이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생활문화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생활문화팀 031 8059 1696

## 화성시문화재단이 전하는 이야기

우리 마음의 온도가 유독 추웠던 기나긴 겨울을 밀어내고 성큼 다가온 봄. 따뜻한 봄기운을 가득 담아 화성시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소식지 《화분》도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격월간지로 발행되었던 《화분》은 이제 사계절의 모습을 품고 '계간지'로 문화예술 소식을 선보이려 합니다.

화성시문화재단은 공연, 전시, 문화예술 교육으로 시민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시민분들이 문화예술을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재단은 시민분들에게 어떻게 문화예술 소식을 빠르고, 재미있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보다 다양한 문화행사 및 사업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온라인 뉴스레터 발행을 시작합니다. 화성시문화재단 홈페이지에 공지된 뉴스레터 구독신청을 해주신 분들의 이메일함으로 뉴스레터가 매월 1회 여러분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지켜봐 주세요.



온라인으로 매거진  
《화분》을 만나는 방법  
hwaboon.hcf.or.kr



이메일로 배송 받는  
화성시 문화예술 소식  
뉴스레터 구독신청

《화분》은 아래 장소에서 무료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운영하는 장소에 《화분》을 놓아두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문의 031 8015 8112

### 화성시문화재단 운영시설

동탄북합문화센터  
화성시미디어센터  
화성시생활문화센터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  
만세길방문자센터  
화성아트홀  
반석아트홀  
누림아트홀  
제부도아트파크

### 도서관

남양도서관  
동탄다원이음터도서관  
동탄목동이음터도서관  
동탄북합문화센터도서관  
동탄중앙이음터도서관  
왕배푸른숲도서관  
두빛나래어린이도서관  
등지나래어린이도서관  
봉담도서관  
병점도서관  
삼괴도서관  
송산도서관  
송린이음터도서관  
정남도서관  
진안도서관  
태안도서관

### 작은 도서관

샘내작은도서관  
기아행복마루도서관  
비봉작은도서관  
마도작은도서관  
팔탄작은도서관  
양감작은도서관  
호수나래작은도서관

### 문화시설

노작홍사용문학관  
로얄앤컴퍼니 아울렛  
모두누림센터  
반도문화재단 아이비라운지  
소다미술관  
엄미술관  
유앤아이센터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 카페

다락  
다원  
달팽이그림책카페  
손커피연구소  
차마시는뜰  
카페 그루비  
카페 쉬시오  
에데니코 커피 로스터스

### 호텔

라비돌리조트  
푸르미르호텔

### 기타

독립서점 모모책방

### 온라인 구독

웹진 《화분》 hwaboon.hcf.or.kr



\*《화분》은 화성시문화재단에서 발행하는 무가지입니다.  
배포처 방문 또는 온라인 구독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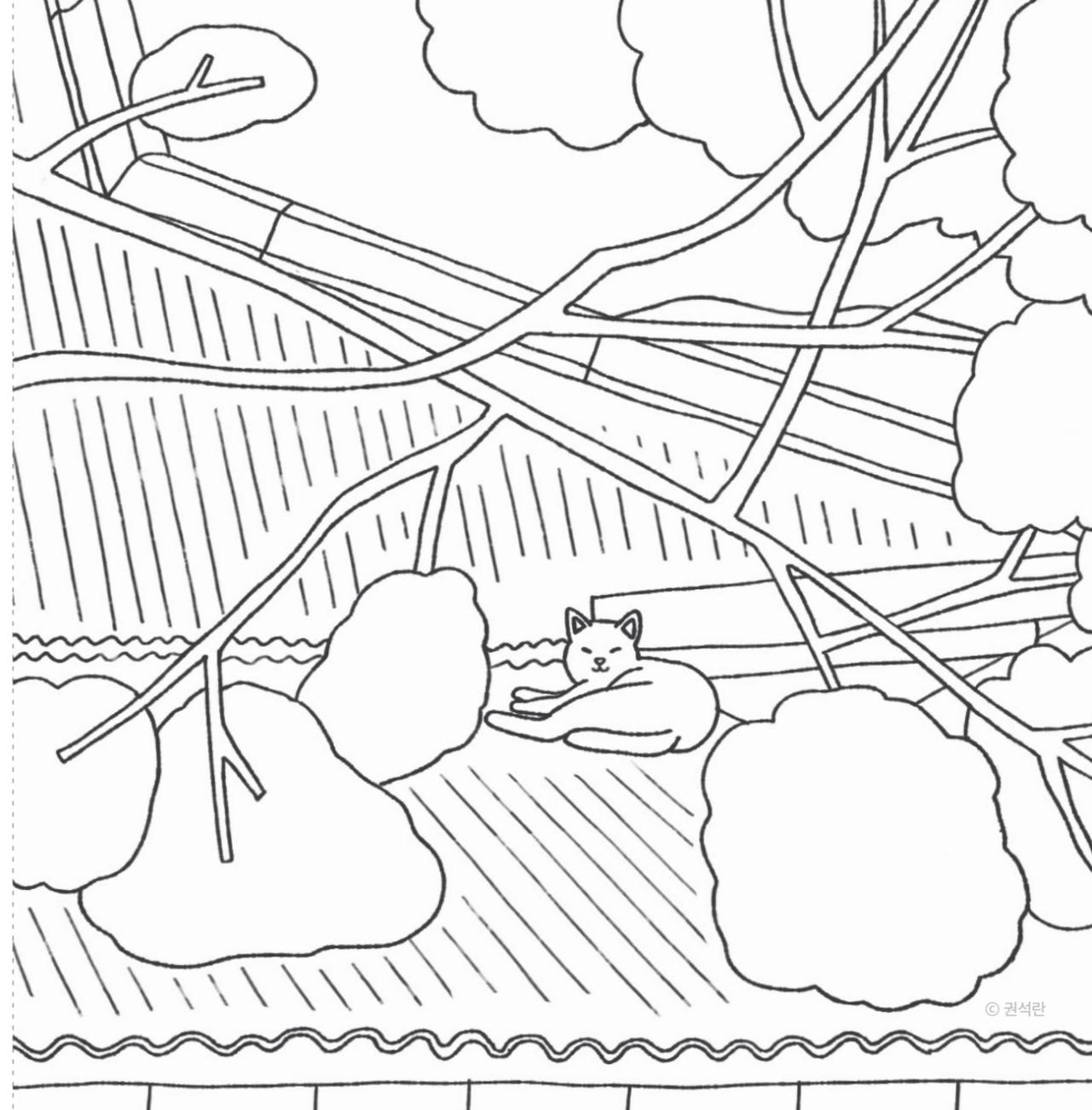
예술을  
담아가다  
일상을  
담아가다



화성시문화재단 SNS채널을 통해 다양한 화성시 문화소식을 만나보세요!  
 각 SNS 검색창에 '화성시문화재단' 혹은 'hcfart'를 검색하시면,  
 화성시문화재단 공식 SNS계정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색으로 색칠해보세요



© 권석란

독자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연락처

※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주세요.

□ □ □ □ □

우편요금  
수취인부담  
발송유효기간  
2021.4.22~2022.4.21  
화성동탄우체국  
제40056호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34, 동탄북합문화센터 3층  
 경영기획국 기획홍보팀 <화분> 담당자

1 8 4 5 9



화성시문화재단에서 발행하는 문화매거진 《화분》은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업서에 적어서 보내주신 내용은 더 좋은 《화분》을 만드는 소중한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답변을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1. 어디에서 《화분》을 만나셨나요?

2. 이번 호 콘텐츠 구성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셨나요?

-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
- ④ 좋지 않다    ⑤ 매우 나쁨

3. 이번 호에서 가장 유익하거나 좋았던 콘텐츠는 무엇인가요?

4. 다음 호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5. 《화분》 편집부 또는 화성시문화재단에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VOL.50 | RESTART**  
**2021 SPRING**  
문화를 담은 빛나는 그릇

**발행처** (재)화성시문화재단  
**발행인** 이종원  
**편집국장** 서관석  
**편집팀장** 정희봉  
**기획·편집** 차영은, 차유나, 디자인봄  
**디자인·인쇄** 디자인봄  
**홈페이지** hcf.or.kr  
**주소** 18459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34  
**전화** 031 8015 8112  
**팩스** 031 8015 8129

《화분》은 화성시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격월간 문화·예술 교양지입니다. 화성시 내외의 다양한 문화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담은 그릇이 되고자 합니다. 《화분》에 게재된 글과 원고는 화성시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본지에 수록된 일부 내용은 화성시문화재단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화분》은 재생원료를 배합하여 만든 친환경종이인 그린라이트지를 사용합니다.

04  
PIECE

화성의 한 조각

14  
INTERVIEW

테너 이규철

36  
FEATURE

어린이를 위한 문화 데이트

60  
PEOPLE

당신의 봄날은 어떤 모습인가요?